MAY 5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한국일보

토론토

No.1123 1983년 5월3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uesday, May 3,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인YMCA창립6주년을 맞아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전택균 전 이사장, 김순창 이사장, 구상회 메트로 YMCA이사, 존·메데이로스 웨스트·앤드Y 제너럴·매니저, 클라이브·죠킴 온타리오주 시민·문화성 과장.

창립 여섯돌맞은 한인 Y

축하회서 유공자 7명표창

토론토한인 YMCA 창립6주년 기념축하회가 30일 하오 약150명의 교포와 캐네디안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조덕호씨가 리드하는 싱어롱으로 시작한 이날 축하회에서는 YMCA영어학교 노인학생들의 영어웅변대회 시상식, 유공자 표창, 축하메시지 낭독등이 있었다.

웅변시상식에서는 1등 송교역씨(67), 2등 장수명(61)·박미자씨를 시상하고, 참가자 10명중 나머지 전원을 3등으로 해서 표창했다.

한인Y는 유공자로 전택균 전 이사장, 강찬영 변호사(프로그램 공로), 이석현 전 베타클럽회장, 천중환 전 와이즈멘즈 알파클럽 회장, 조남유 목사(프로그램 공로), 정호영(영어교사)씨, 김필숙(한글교사)씨를 표창했다.

외빈으로서는 온타리오주 시민문화성의 브루스·맥카프리장관을 대신해서 죠킴 새이민자과장 부부가 참석, 장관의 축하 메시지를 낭독했다.

또한 토론토 YMCA의 프랑코·사보이에 부회장도 나와 축사를 해주었다.

뜻밖에 횡재
로토100만달러

조그만 손가방 안에 넣어두고 2개월간 잊고 있었던 수퍼·로토(Super Loto) 티켓이 발견과 동시에 당첨돼 100만불을 타게 되어 화재.

행운의 주인공들은 미시사가의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6명의 직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2월중순 합자해서 티켓을 구입했는데 산날 손가방에 넣어둔뒤 회사이동관계로 바쁜틈에 잊고 있다가 27일 아침 손가방을 정리하다 이 티켓을 발견, 이들이 함께 뜯어 대조한 결과, 행운의 번호를 얻은 것이다.

이에따라 이들은 각기 $166,666.67씩 분배받게 되었다.

박사학위논문 통과

본사 김정근 논설위원

◆김정근위원

수년간 토론토대학교에서 교육사와 사회사를 전공해 오던 본사 김정근논설위원이 곧 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작년 후반기에 완성된 김위원의 논문에 대해 논문지도교수단은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했으며, 지난달 하순에 열린 6인 구두심사위원회는 김위원과 장시간 면담, 김위원의 학위는 최종 확정되었다. 학위는 오는 6월7일에 토론토대학에서 수여된다.

학위논문은 서양화와 문화적 소외문제를 다룬 것이다.

한국인이 북미의 대학에서 순수 인문과학 분야에서 학위논문을 생산하기는 드문 일이다.

현재 온타리오 이민사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위원은, 한국에서는 서울대 문리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토론토대학에 오기전 그는 미국에서 도서관학(역사학 도큐멘테이션전공)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로자리대학), 같은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컬럼비아대학)했다.

김위원은 논설위원및 본 한국일보사 부설 이민사자료실의 산파역으로 토론토한국일보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이민사회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많은 글을 씀으로써 교포사회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된다.

"신문은 사회의 양심이자 경종"

캐나다전국 신문상 시상식서 강조

신문은 사회의 양심이며 저널리즘은 "주의 일(Lord's Work)"로서 간주돼야 한다고 30일 토론토에서 거행된 캐나다전국신문상(Canada National Newspaper Awaads)시상식에서 영국의 대 저널리스트가 말했다.

이날밤 쉐라톤·센터에서 있은 시상식에서 초청연사로 등장한 런던선데이·타임즈지의 필립·나이틀리씨는 전 토론토·스타 발행인으로 지난81년 사망한 마틴·굿맨씨의 말을 인용, "신문은 시민의 권리가 독재자의 발굽에 짓밟히거나, 정부가 합법적 요구를 게을리할 때, 혹은 평민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경고의 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상식에서는 토론토·스타지의 팝·컬럼니스트 피터·고다드(Peter Goddard)씨와 시사평론가 존·슬링거(John Slinger)씨가 다른 8명의 언론인들과 함께 상을 받았다.

작가인 전 토론토·스타 편집인 피에르·버튼(Pierre Berton)씨, 전 토론토 텔리그램 발행인 존·바셋(John Bassett)씨 등이 존·B·에어 온타리오주 총독이 수여하는 명예의 전당상을 받았다.

이외의 수상자로는 논설부문에서 몬트리얼·가젯(Montreal Gazette)지의 조앤·프레이저(Joan Fraser), 속보(Spot News)부문에 수탐·뉴스의 크리스토퍼·영(Christopher Young), 피처스토리부문에 몬트리얼·가젯의 글렌·앨런, 보도사진 부문에 에드몬톤·선지의 로버트·테일러등이다.

한인사회에 1천달러 기증

동우회원 송중구씨 유언

◆고 송중구씨

"작은 금액이지만 내가 사랑한 한인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죽어서도 기쁘겠다"는 말을 남기고 송중구씨(토론토 동우회 이사)는 눈을 감았다.

이에따라 송씨가 유언으로 기증한 1천달러는 3일 상오11시 토론토한인천주교회에서 토론토동우회장으로 거행될 장례식때 한인회관건립위원회에 전달된다.

때로는 과격하지만 "정의파"임을 자타가 인정하는 송씨는, 7년전 임파선으로 병을 얻어 2년반 후 위암수술을 받았고, 또 2년후에는 암이 뇌로 번져 시달림을 당했다.

약 2개월전 병세가 호전, 퇴원한 송씨는 "덤으로 받은 여생을 교포사회를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하면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가 1일 아침9시30분 재입원한 세인드·마이클병원에서 사망했다. 향년은 53세.

급작히 병세가 악화된 송씨는 1주일전 친구 박광철씨(동우회 이사)에게 "1천달러를 한인회관건립위에 전해달라"면서 "나는 먼저 가네만, 자네는 쉬어가면서 일하게"라고 당부했다.

송씨는 6·25전에 국방경비대에 입대, 숱한 대·소 전투를 겪으면서 준위로까지 승진했다.

박씨는 송씨가 정의와 신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동포와 나라를 지극히 사랑했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권장례씨와 3남1녀가 있고, 친지대표는 서명식(동우회장), 지명환(동 이사장), 박광철(전 이사장)씨이다.

도난불량통조림
일부 아파트서 발견

지난 오싱턴·스트릿(Ossington St.)의 한 창고에서 도난당한 불량「달팽이통조림」(본보 30일자 참조)중의 일부가 에토비콕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다.

이날 발견된 것은 도난당한 33,000개중 91개에 불과하다.

이 통조림의 표식은 빨간색딱지에 크리스티 스네일스(Christie Snails)라는 글씨와 SABM이라는 코드와 포장날자등이 인쇄돼 있다.

한편 경찰은 이 통조림을 발견하는 대로 전화 967-2442로 신고해 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은하 보석
ROLEX
란 대
콤 리
화 점
장
품
교포올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해소지업체
45% ~ 50% OFF
오메가시계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4.6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 %		7.25%
90일	8 %		7.25%
180일	8.5%	8.25%	7.75%
365일	8.75%	8.2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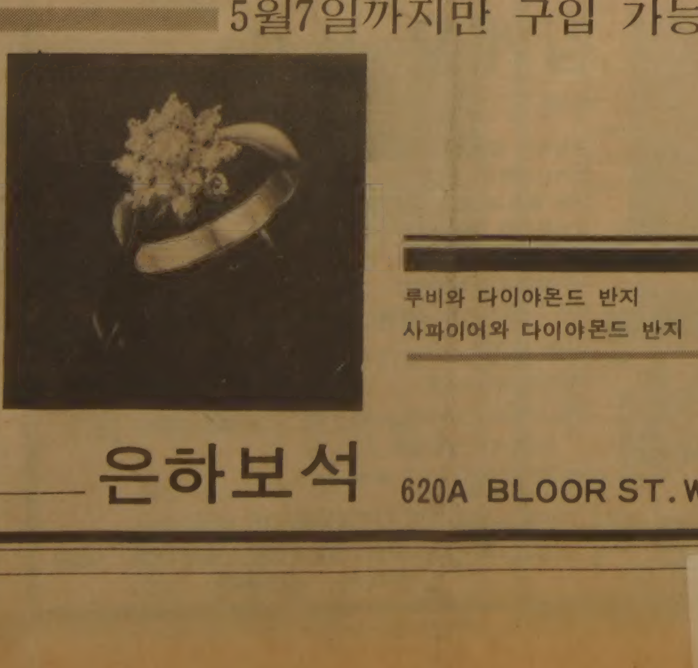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ng I. Hyun C.A.

강학수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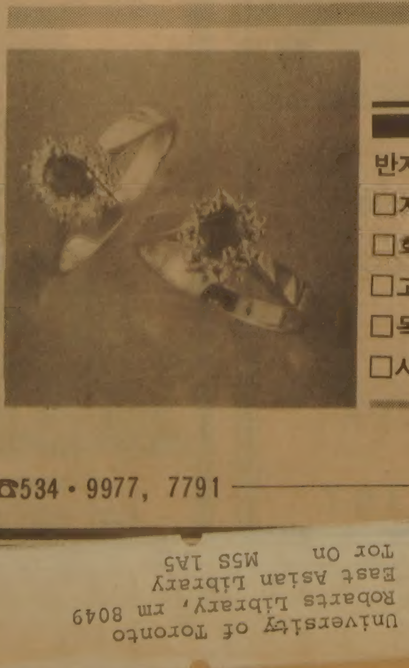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어머니날 스페샬 반지 세일

5월7일까지만 구입 가능함



다이아몬드
TW 4/1 캬라트 $ 450
TW 2/1 캬라트 $ 649
TW 1 캬라트 $1,190



루비와 다이아몬드 반지 $495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 반지 $495

반지외
□지갑 · 핸드백
□화장품
□고급향수
□목걸이
□시계 등

은하보석 620A BLOOR ST.W. ☎534·9977, 7791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F

준원·선원형제 활약여전

소속팀 「브루크린·위트비」「온」주하키챔피온

교포자녀가 주장으로 활약하는 청소년 아이스하키팀이 온타리오주 챔피온이 되었다.

메트로·토론토동부교외 소도시인 위트비(Whitby)에서 발간되는 위트비·프리·프레스(Whitby Free Press)는 최근 브루크린·위트비(Brooklyn-Whitby) 메이저·밴탐(Major bantam)대표팀이 지난달 윈저에서 열린 온타리오·마이너하키협회 AA디비존 결승전에서 리버사이드·레인저(Riverside Rangers)팀을 이겨 챔피온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메이저·밴탐팀은 14세로 구성된 팀이다.

온타리오주내에는 14세구성팀이 8개지역에 40여팀이 있다.(각지역마다 4~5개팀)

이들 팀은 하키시즌중에 리그로 게임을 벌여 지역챔피온을 뽑은 후 2월부터 지역챔피온간의 Play-off게임을 라운드·로빈(round robin) 방식으로 진행, 여기에서 이긴 팀이 온타리오챔피온이 된다.

이팀에 소속하고 있는 교포소년 이춘원군은 전오샤와실업인협회회장이며 피겨스케이트선수였던 이영민씨의 장남이다.

이씨의 차남인 선원(Sun Lee)군은 12세로 구성된 아담(Adam)팀의 골리로 "진공청소기(vacuum cleaner)"라는 별명을 갖고있다. 선원군은 지난해 와일드·캣스팀 골리로 모국동계체전에 참가, 실력을 널리 인정받기도 했다.

이씨는 두아들을 일류하키선수로 성공시킨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서양사람들과 같이 자식이 잘못했을때라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데 원인이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사람은 운동에서나 공부에 있어서나 못하면 너무 야단쳐서 좌절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상례라면서 이런 점은 서양인들을 본받아야 할것이라고 이씨는 강조했다.

◆챔피온전이 끝난후 감독으로 부터 격려를 받는 주장 이춘원군

22일 봄맞이축제

온타리오 신민당주최

온타리오주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이 주최하는 주민을 위한 「봄맞이 축제(Spring Fair)」가 오는 5월22일(일) 오전 8시30분부터 하버후론트(Harbourfront)에서 열린다.

각지역에서 출품된 각종 수공예품, 음식을 비롯한 쇼와 전시, 연극, 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온」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원주민 인디안의 특별출연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이날 참관하는 관객은 크레이지 경매(Crazy Auction), 자작시 낭송, 족홍축구팀 경기, 창던지기, 말발굽던지기, 야구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이날 아침 일찍 온주 NDP당수인 밥·레(Bob Rae)씨가 주관하는 팬·케익 조찬회도 있으며 입장료는 1인당 $2, 가족당 $5이다.

외은골프대회 우천으로 연기

30일 리치몬드·힐골프장에서 열렸던 캐나다외환은행주최 제1회 교민친선골프대회가 우천으로 경기 초반에 중단되었다.

이날 새벽부터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골퍼들이 집결, 각조별로 티·업 해 출발했으나, 계속 내리는 강우로 부득이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주최측은 현재 7월2일 일정을 잡아 재개할 것을 고려중에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발표할 예정.

"무서워 학교못가겠다"

불량 한인학생들 칼로위협 금품갈취

(뉴욕지사)흉기를 소지한 한인불량청소년들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교포학생들을 위협,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발해 학부형들이 학교당국에 몰려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퀸즈의 브라이언드고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는 한인부모 10여명은 21일 학교를 방문, 교장에게 한인불량청소년 3~4명이 하학시간인 하오3시께 학교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서성거리다 귀가하는 교포학생에게 돈을 뜯어가는 일이 빈번하므로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와 학교의 한국인교사, 관할 경찰서인 114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주사이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한인학생 8~10명이 불량배에게 돈을 뜯겼다는 것.

교포학생 박모군의 경우, 한인불량배들이 칼을 보이며 돈을 요구, 40달러를 갈취당한후 겁에 질려 학교가기를 무서워하고 있다.

불량배들은 주로 갓 입학한 남학생들을 위협, 20~150달러까지 갈취하고 있다고 한 학부모가 전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주지않을 경우, 선글래스를 끼고 집근처를 배회하며 겁을 준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학부모들의 진정에 대해 교내에서 발생한 일은 학교책임이나, 밖에서 일어난 일은 경찰이 처리할 문제라고 주장, 114경찰서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찰측은 동양계청소년갱문제를 취급하는 시경 정보과형사와 협조, 불량배들의 배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인학부모들은 21일 학교를 방문한 후, 긴급 모임을 갖고 우선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부모들이 번갈아 밴트럭으로 피해학생들을 자동차로 아침에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오후에 귀가시키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돈을 뺏기고 얻어맞는다고 해서 전학시키기위해 이사하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문제에 직접 부딪쳐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金聖鍾 작

흑5의 사나이

<224>

헤로인 ⑲

무대바뀌어 호텔침대밑에서 시체가…

그는 창문을 닫고나서 침대쪽을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침대쪽에서 악취가 나는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시트를 걷고 침대밑을 들여다보았다. 악취가 풍겨왔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무릎을 꺾고 엎드렸다. 그의 눈에 사람의 손 하나가 비쳐 들었다.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다시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허둥지둥 뒤로 물러앉으면서 소리쳤다.

「누구야?」

그 바람에 여자가 놀라 일어났다.

「왜 그러세요?」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저밑에 사람이 있어! 누구야? 이리 나와!」

그 말에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보라구! 저거 보라구! 손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여자는 벌벌 떨면서 그쪽은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주워입으면서

「빨리 사람을 불러요!」

하고 소리쳤다.

사내는 비로소 지금까지의 악취가 시체가 썩는 냄새였음을 알았다. 시체 위에서 여자와 정사를 가졌다고 생각하자 소름이 끼쳤다.

그가 벌벌 떨고있자 여자가 냉큼 전화통으로 달려가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큰일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녀는 수화기를 떨어뜨렸다가 집어들고 방호수를 알려 주었다.

곧 호텔종업원들이 달려왔다.

그들중 담이 큰 청년이 침대밑으로 손을 뻗어 시체를 끌어냈다. 악취가 진동했다.

그것은 금발의 외국인 시체였는데 가슴에 깊숙이 칼이 박혀있는 것으로 보아 살해당한것 같았다.

두 시간 뒤 그 외국인 피살체의 지문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왔다.

「이 외국인 지문은 가방에서 채취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지문가운데 하나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마인은 「그 영국인이다!」하고 소리쳤다.

「그렇다면 운반책 4명이 모두 죽은 셈이군.」

「네, 운반책들은 모두 살해당했읍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헤로인을 탈취해간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대단한 강자임에는 틀림없읍니다.」

「영국인도 그럼 그자가 죽였을까?」

「그자라면 소음 권총을 사용했을 겁니다. 이 칼을 쓸 필요가 없지요.」

모든 정보와 보고는 센터로 보내져오고 있었다. 센터의 전화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고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보고나 정보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마인은 기다리다 못해 박두봉을 찾아갔다.

그는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가 자살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는 엄중한 감시가 붙어있었다. 그는 며칠 전보다 훨씬 건강이 좋아져 있었다.

朴 男 그림

하프백(half-back)할인제도

5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적용

온타리오주 시민·문화부(Citizenship and Culture)는 현재까지 캐나다저자에 의해 발간된 서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하프·백(Half-Back)」 할인제도를 오는 6월1일부터는 박물관(Museum)과 미술관(Art Gallery)에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프·백제도란 낙첨된 윈타리오(Wintario) 티켓($1) 1장에 대해 50센트씩 계산해 책을 살때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5월5일 이후에 구입하는 모든 윈타리오 티켓에 이를 적용한다.

「온」주 박물관협회의 그레익·베커씨는 이조치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객을 증진하는 교육적인 효과는 물론, 기구자체에도 좋은 진흥책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내에는 약250여개소 이상의 대소 박물관과 화랑이 산재해 있다.

단,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팍스캐나다(Park's Canada)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다.

사교면에서 인기

워싱톤 방문한 트루도수상

(오타와)지난주 30시간동안 워싱턴을 방문, 레이건 미대통령과 회담하는등 바쁜 일정을 보낸 트루도 캐나다수상은 워싱턴 신문들로 부터 정치·외교면에서 보다는 사교면에서 주목을 더욱 끌었다.

30일 워싱턴·포스트지는 "크루즈·미사일, 나토동맹에 관해서는 묻지말라. 이날밤 캐나다 대사관저에서 있은 캐나다·미국 관계인사 만찬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트루도수상이 마곳·키더(Margot Kidder)양을 동반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마곳·키더는 영화 수퍼맨에서 수퍼맨의 애인역으로 나온 배우이다.

이같은 워싱턴 신문의 보도에 대해 캐나다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오타와에서는 수상이 누구를 동반하는지 하는 것은 별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 트루도수상은 매번 데이트 상대를 바꾸니까"라고 응답했다.

트루도수상이 동반한 여성으로서는 미국 배우 바바라·스트라이젠드, 기타연주가 료나·보이드, 뉴욕 사교계여성 레이시·뉴·하우스등이 유명하다.

교민가게에 강도

종업원 얼굴에 상처입어

코너·스토어에서 교민종업원이 스토어에 침입한 강도에 현금을 뺏기고 강도가 휘두른 나무몽둥이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은 사건이 1일 발생했다.

콕스웰·에비뉴 357번지에 위치한 브라더즈·콘비니언스·스토어(Brothers Convenience Store)의 종업원인 김사무엘(25세)은 이날밤 12시30분경 강도1명이 들어와 카운터에 접근, 갖고있던 나무몽둥이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경찰에 보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강도의 요구에 순응, 돈을 주었으며 범인이 가게를 떠나려는 순간, 범인에게 접근하다가 범인이 휘두른 몽둥이에 코를 맞아 상처를 입었다.

교 민 동 정

◆박동호(크리스탈꽃집 대표)=블루어와 스파다이나 선상에 꽃집을 개업했다. 파거 도나스숍을 경영하다가 꽃에 취미를 붙여 새로 가게를 설립했다. 앞으로 교민들의 많은 애용을 바란다고.

교육전시회 개최

12일부터 퀸·엘리자베드빌딩

오는 5월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익스비션·플레이스내의 퀸·엘리자베스 빌딩에서는 83년도 「교육전시회(Education 83)」를 갖는다.

온타리오 연장교육협회주관하에 「변모, 도전,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예술, 대학교육, 언어, 콤퓨터, 레크레이션, 건강과 복지, 경력과 사업, 교육기재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특강, 시범실습과 전시가 병행된다.

주요세미나의 제목으로는,

*언어워크숍
*토론토학교의 공연예술
*자신의 가능성개발
*작문방법
*언어장애
*기억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인사업 경영의 정도(Right Way)등이다.

본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4.50, 18세이하의 학생 $2.50, 시니어 $2.50이다.

"묘지역사를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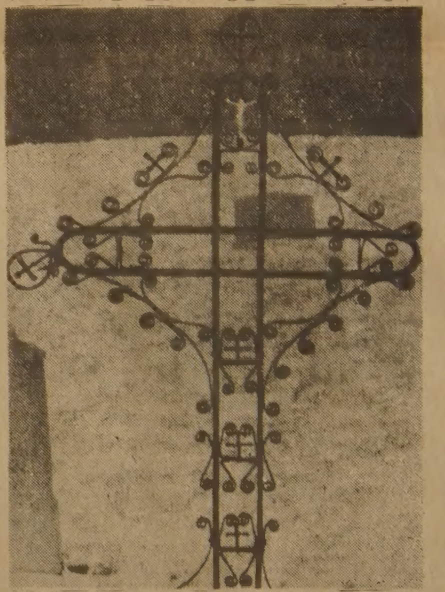
온타리오역사학회주최 워크숍

온타리오역사학회(Ontario Historical Society)와 그린빌역사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지나간, 그러나 잊지못할(Gone But Not Forgotten)"이라는 기이한 주제의 워크숍이 오는 5월6일과 7일 양일간 프레스콧(Prescott)에서 열린다.

묘지와 역사, 문화에 대한 발굴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모임은 온타리오에서 최초로 열리며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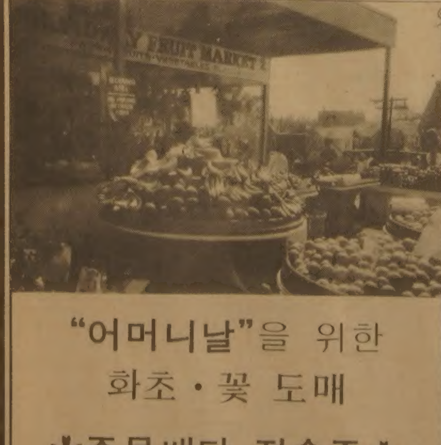
이번 모임의 책임자는 토론토대학 박물학과의 주임인 데반·뉴랜드 교수이다.

워터루대학의 낸시·루 교수는 19세기 철·십자가, 독일과 로마 카톨릭 묘지 안장에 대한 연구발표를 하게 된다.



◆남부 온타리오지역에 전통적으로 많이 파급되어 있는 철제 십자가 묘지표식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어머니날"을 위한
화초·꽃 도매
✻주문배달 접수중✻
— 친절봉사
— 저렴한 가격
☎ 465-8167
Mr. 곽 Mr. 김

부흥성회

김계용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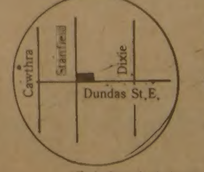
학력 및 경력
경북대학 장로회 신학대학
뎀버신학석사
상항 장로교신학 D. MIN.
벨링톤대학 명예신학박사
예수교장로회 전도부총무. 브라질선교사
미주장로회 총회장역임
현재 LA영락교회 당회장(북미한인교회 최대의 교회)

집회시간
5월12일(목) 13(금) 14(토) 15(주일) 7시30분
5월14일(토) 조찬기도회 아침7시 중공방문강연
14일(토) 성경공부 오전11시
주일새벽기도회(15일) 새벽6시30분

토론토영락교회
126 O'CONNOR DR.
at PAPE AVE. (416)423-9880
담임목사 김재광

소피아 미용실
개업10주년 기념

정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봉사가격으로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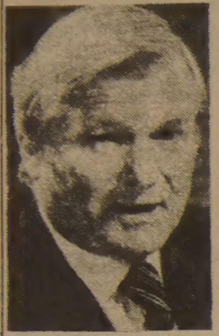


1133 Dundas St. 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주말에는 혼잡하오니 주중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데이비스수상 출마설 파다

금주내 연방보수당수후보 판도드러나



◆1주일내에 연방보수당수 출마여부를 결정해야 할 데이비스 온타리오주수상

윌리엄·데이비스 온타리오주수상이 연방 보수당 당수에 출마키로 결심했다는 소문이 오타와와 퀸즈팍에 널리 퍼져있다고 30일자 토론토·스타지가 보도했다.

데이비스수상의 가장 측근인 놈·앗킨즈보좌관과 휴·시갈씨는 출마여부의 결정이 앞으로 1주일뒤에나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수선출전당대회는 6월11일 오타와에서 열린다.

시갈씨는 두명의 서부주수상이 데이비스에 출마 권고전화를 보내오는등 전국에서 수많은 전화·편지가 쇄도, 데이비스수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 브램톤출신인 데이비스수상은, 온타리오주에서는 뛰어난 지지를 얻고있으나, 불어의 핸디캡등으로 쾌백주와 알버타등 서부주의 지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열심히 불어를 습득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CP통신의 통계에 의하면 온타리오주 대의원의 75%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한편 데이비스수상의 연방 보수당당수 출마결정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던 부인 캐더린·데이비스여사는 그같은 소문을 부인하고 "한때 절대 출마하지 않는게 좋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 최후 결정은 데이비스 자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선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캐서린여사는 "데이비스가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연방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보수당 당수 선거운동은 지난주 대의원선출이 끝나고 막바지에 들어섰다. 30일밤 토론토 매씨·홀에서 있은 전 후보자 연설에서 클락등 후보들은 지금까지 자유당등을 공박하던 온건무드를 깨고 각 후보들끼리 공격을 개시했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역시 재선출을 노리는 조·클락. 그는 이날 각 후보로 부터 선거운동상 치사한 숫법, 좌익경향의 경제사회 정책등을 공격받았다.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브라이언·멀로니 후보는 자신만이 쾌백주에서 큰 지지를 얻을수 있는 사람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변호사 출신으로 영·불어에 능통하나, 지난 당수선출에서 클락에 패한 이후 당내중직을 맡은 적이 없었다는 약점이 있다.

전 토론토시장 데이빗·크롬비씨는 이날 연설에서 신용, 정직등을 호소하며, 클락의 선거전략을 공박했고, 존·크로스비, 마이클·윌슨후보등은 자유기업정신등 경제 사회문제로 클락을 공박했다.

클락이 당수가 되려면 우선 1차 투표에서 최소 40%~45% 즉, 1,100표의 지지율을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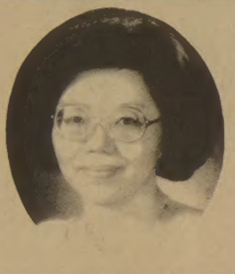
총 3,153 유권자중, 현재까지 클락에의 지지를 표명한 수는 1,048이다.

그러나 만약 금주내로 윌리엄·데이비스 온타리오주 수상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모든 선거의 판도는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후보명	현재까지 확보된 지지대의원수
조·클락	1,100
브라이언·멀로니	720
존·크로스비	550
피터·포클링턴	205
마이크·윌슨	175
데이빗·크롬비	150
존·갬블	50

한인오케스트라의 제6회연주회를 듣고

유회자(음악박사)



◆유회자 박사

지난 4월24일 로이롬손홀에서 있었던 한인교향악단의 제6회 공연은 한국에서 기성성악가인 전지현, 엄정행 두분을 특별히 모셨을뿐만 아니라 이곳 북미에서 활약중인 신경욱, 이주연 두분의 대가들을 모시고 프로그람의 대부분을 한국 가곡및 한국작곡가의 작품으로 채웠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뜻깊은 음악회였다.

각 성악가들이 두곡의 한국가곡과 서양 오페라 아리아 한곡씩, 전부 12곡의 성악곡을 들려주었으며, 오케스트라는 유신 작곡 관현악을 위한 고담과 로시니의 The Thieving Magpie 서곡과 비제의 칼멘 조곡을 연주함으로써 다양하고 즐거운 음악회를 끝마쳤다.

한국에서 오신 두분의 성악가들은 그동안 신문지상을 통해 그 관록을 들은바 있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연주를 기다렸었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탓인지, 또는 그동안 북미에서 오래살다보니 우리귀가 너무 풍요한 음식으로 채워져서인지, 마음에 인상을 남기는 연주가 못 되었음이 안타까웠다. 엄정행씨는 맑고 무리없는 성량으로 박연폭포와 토스카의 "저별이 빛나건만"에서 무난히 연주를 해 주었으나, 욕심같아선 좀 더 테너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곡을 선정하여 기대로 가득찼던 청중의 마음을 흐뭇이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날의 성악곡으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이주연씨의 베에토벤곡 〈Ah! Perfido〉와, 신경욱씨의 김동진작곡 심청전 중에서 〈어허! 이것이 웬말이냐〉였다.

이주연씨는 자신이 넘친 곡을 선정하여 그 가사와 감정전달, 성대조절에 탁월한 콘트롤을 보여주어 지금까지 토론토에서 들려준 어느 노래보다도 인상깊은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아쉬웠던 것은 프로그람에 서양 오페라 가곡들의 가사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무엇을 노래했는지를 모르는 점이었다.

신경욱씨는 그의 오랜 무대경험과 끊임없는 연구자세로 콘서트형식의 무대를 실제 오페라의 한 장면으로 승화시키는듯 액숀과 감정이 한 덩어리가 된 극적인 표현을 잘해주어 이날밤 가장 열정적인 인상을 남긴 노래를 들려주었다.

이번 공연에서 이주연씨도 심청전의 한 장면인 〈아이고! 아버지〉를 불러주었다. 김동진작곡 심청전 오페라는 78년도 세종회관개관기념으로 작곡된 것으로써, 그 한 부분이라도 멀리 이곳 토론토에서 들을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이런 귀한 기회를 마련해준 성악가들, 그리고 한인 오케스트라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바이다.

이날의 또한가지 뜻깊었던 것은 한국작곡가의 작품을 프로그람에 넣은 것이다. 이 한인오케스트라가 진실로 에트닉그룹의 한 관현악단으로 그 존재와 성격을 뚜렷이 가지려면, 그 한가지 길이 바로 이런 한국작품을 이곳에 소개하는 길일 것이다.

솔직히 오케스트라의 연주실력 자체로 이 서양사회에 그 존재가치를 자랑할려면 아직도 많은 피눈물나는 노력과 수련의 기간이 필요함을 느낀다. 그러나 한국인의 독특한 작품과 그 문화를 소개하는 일이라면 어느 오케스트라라도 비교할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연은 다른 어느 공연보다도 뜻깊은 의의를 갖었다고 하겠다.

비록 많은 서양인 오케스트라 멤버와 어린교포 자녀들의 한국적인 독특한 리듬과 그 흥취를 표현하는데 서툴러 연주가 훌륭하진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의의는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이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우리자녀들에게 한국적인 음악을 배우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이 또한 큰 의의를 갖는 일일 것이다.

한가지 음악자체의 평가를 해 본다면, 한국가곡의 질적인 문제였다.

특히 이날밤 연주되었던 가곡들이 피아노를 반주로 생각해서 작곡된 곡들이다. 이 가곡들을 관현악으로 편곡을 하여 반주를 하였는데, 그 편곡자체가 많은 단원들을 우두커니 앉혀 놓게 하든가, 또는 관현악 악기를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한 편곡일 뿐만아니라 노래하고의 앙상블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오직 가곡의 노래 선률이 우리 마음에 익어진 아름다운것일뿐, 그 가곡들에 쓰여진 화성의 용어나 관현악기를 다룬 관현악법이 모두 초보의 단계를 넘지 못한 수준이라서 수준높은 음악만을 주로 연주하는 로이롬손홀에서 우리 음악을 자랑하기엔 좀 더 격조높은 우리 음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었다.

그럴려면 아예 작곡자가 창작을 할 때 관현악기란 악기를 생각하고 곡을 쓰는 길이 최상의 길일 것이다. 그렇게 쓰여진 곡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반문이 나올 것이다.

한나라의 문화나 전통을 지각있는 사람들이 길러주지 않으면 안된다. 서구 음악역사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작곡자들은 왕, 귀족, 관청 또는 교회의 청탁과 필요에 의하여 작곡을 해왔다. 한국의 부유귀족층이 아직 예술의 장려에 눈을 뜨지 못했다면, 관현악단같은 예술기관에서 청탁을 해서 우리의 문화를 길러주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인교향악단이 이런 기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에게 청탁을 해서 음악회의 한 프로그람에 넣었다면 훨씬 더 빛이 났었을 것이다.

아마도 기성한국음악인을 이곳에 모셔오는것보다 더 경제적이고, 길이 남고, 의의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날밤 관현악단으로 연주한 서곡과 조곡은 한인교향악단으로서는 가장 무난히 소화해서 연주한 느낌이다. 청중들의 반응으로 보아도 오케스트라가 만족할만한 연주를 해준 것을 판단할 수 있겠다. 결국 연주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가벼운 곡이 아직은 한인교향악단에 어울리는 곡들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또한 청중들도 아마 이번 처음으로 로이롬슨홀을 구경한 분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어 정규적으로 이곳의 음악회에 다녀서 음악에 소양을 많이 쌓으신 분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청중들을 하루저녁 즐겁게 음악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곡을 선정하는 것이 앞으로 한인교향악단이 교포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청량수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존재 의의가 확고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지켜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Mirage Boutique
어머니날 대매출
50% SALE
5월2일(월)부터 14일(토)까지
숙녀복 전문집
미라지
676 BLOOR ST. W. (한국비데오옆)
☎: 530-1870(권수희)

ZWILLING J.A.HENCKELS
독일제 쌍둥이표 칼은 너무너무 유명 합니다.
◉품질 보장。
◉각종 부엌칼 종류 및 가위。
◉견고한 독일제 유명메이커。
〈빅·세븐 선물센타〉
660 Bloor St. W.
TORONTO, ONTARIO
☎: 533-7966. 533-8110
대표 김영철

부고문

존경하는 동우회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사업이 번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동우회원 송중구씨가 5월 1일 상오 9시30분 St. Michael Hospital에서 우리들과의 영이별을 고하고 운명하셨음을 애도하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장례식
때: 5월3일 상오11시
곳: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집전: 김병운 신부

미망인: 권상례　삼남: 송명호
장남: 송석호　장녀: 송진희
차남: 송주환　사위: 최남축

우인대표: 서명식(동우회장)
지명환(동우이사장)
박광철(전이사장)

토론토동우회

개업인사
CRYSTAL'S FLOWER MART
제가 금번 블루어×스파다이나 부근에 꽃가게를 OPEN하여, 인사드립니다.
지나시는 길에 1차 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박동호 올림
CRYSTAL'S FLOWER MART
366 BLOOR ST. W. ☎927-8730
☆각종행사및 모임에 주문배달함.
영업시간: 월~토 오전9시~밤11시
Walmer Spadina Subway Bloor St. W

인터뷰의 大家…女性 저널리스트

「바바라·월터스」

「USA 투데이」 인터뷰서 털어놓은 경험담

바바라·월터스(51). ABC에서 「바바라·월터스·스페셜」을 맡고 있는 그녀는 기자로서, 앵커우먼으로서 경력이 화려한 원로여성저널리스트.

CBS와 NBC를 거쳐 1976년 ABC 전국네트워크뉴스의 코앵커(Co-anchor)로서 발을 디딘 그녀가 이제는 인터뷰의 대가가 되었다. 최근 「USA투데이」 신문의 인터뷰를 받은 그녀가 털어놓은 경험담을 들어 본다.

〈문〉 야세르·아라파트, 마가렛·대처, 리차드·프라이어와 같이 개성이 각각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 하기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다. 인터뷰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내가 직접 전화를 건다. 그밖에 직접 편지도 많이 쓴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케이스와 인터뷰를 원하는 사람의 케이스를 면밀히 조사한다. 수년동안 정치지도자들의 경우를 따져볼 때 인터뷰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였다.

〈문〉 의사 헤르만·타노우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진·해리스를 인터뷰할 당시 그녀에게 상당히 동정적이었던 것

닉슨에「워터 게이트」꺼냈다 노발대발
레이건大統領은 진짜모습 파악힘들고
카터는 눈빛으로 心中알아차릴수있어
사다트와 베긴同席시킨일 자랑스러워

같은데 자신이 인터뷰하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가?

—진·해리스와 그녀의 변호사를 만나, 앞으로 인터뷰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하기 위해서 그녀의 감옥을 찾아갔다. 그러나 단지 인터뷰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에 세번이상이나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당시 내가 안 것은 진이 누군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면 상대자는 나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항소가 거부당한 날 그녀의 변호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왔다.

그이후 잔과 나는 서로 편지왕래를 할 정도로 가까와졌다.

〈문〉 가장 어려웠던 인터뷰는 어떤 것이었나?

—라차드·닉슨과의 한시간동안의 생방송 인터뷰였다. 닉슨이 스캔들 후 재기하지 못한 상태에 가진 인터뷰였기 때문에 무척 걱정이 되었다. 너무 딱딱하게해도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비난을 받을 것은 뻔했다.

▲바바라·월터스

인터뷰가 끝나기 5초전에 닉슨에게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문제의 테이프를 태워버리지 않았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느냐고 묻고, 이야기를 끌고 나갔다가 끝난 후 닉슨은 노발대발했고 난 어름장처럼 굳어버렸다.

〈문〉 진행상의 실수같은 것은 없었나?

—닉슨과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질문으로 그가 불편해지자 닉슨은 「외교정책의 문제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벌써 끝내버린 외교정책에 관한 질문카드를 찾을 수가 없어 당황. 그러나 다행히도 그 카드는 내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해나갔다. 인터뷰가 끝나서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그 카드를 그동안 내가 깔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순서대로 외교정책에관한 질문이 끝나자 기계적으로 그 종이를 깔고 앉아 버린 것이다. 예기치 않은 순서의 뒤바꿈으로 일어난 에피소드다.

〈문〉 레건대통령에게 느낀 인상은?

—인터뷰하기 쉽기도하고 어렵기도한 상대이다. 카메라앞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편하기는 하지만 그의 심중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카터대통령은 그의 눈빛에서 그의 느낌은 알아차릴 수 있었으나 레건대통령은 진짜모습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문〉 인터뷰를 위해 고 이집트대통령 안와르·사다트와 이스라엘수상 메나헴·베긴과의 전례없는 미팅을 주선한 것으로 아는데 그와 같은 파워브로커(powerbroker)로서의 역할도 저널리즘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

—나자신은 「파워브로커」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상 첫번째 그리고 유일한 사다트와 베긴을 동석시킨 인터뷰였다. 이것을 나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연재소설〉

혼돈 ⑬

글·어태준 그림·최미정

제2편 착수

벽에 걸려있는 해바라기 모양의 시계가 한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배가 고팠다. 뭘 좀 먹어야 살 것같은데, 서로 안지가 하루도 안된 유리에게 밥을 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저기, 나랑 같이 밖에 나가서 뭘좀 먹고 올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색한 표현이었지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

"어머! 내 정신좀 봐. 시장하신 모양이죠? 제가 식사준비는 다 해놓았어요."

"사실 아침도 못 얻어먹고 나왔어요."

거북스러운 변명을 어물거리고 있는 동안 유리는 벌써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제가 진작 물어봐야 했는데, 얘기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녀는 구수한 냄새가 시장기를 북돋우는 된장찌개를 뒤적이며 미안해 했다.

나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쌀밥을 입에 꾸겨넣고, 된장찌개를 퍼넣으며 게걸스럽게 먹었다.

식사를 끝내고 나니 서서히 긴장이 풀리고, 졸음과 포만감이 밀려왔다.

"굉장히 시장했던 모양이예요. 식사를 조금 더 드릴까요?"

유리의 말소리조차도 꿈속에서 들리는 것같았다.

"아니예요 염치 없게 아주 잘 먹었어요."

하품이 섞인 나른한 대답이었다.

"졸리시면 들어가 주무세요. 제가 시간에 맞추어 깨워 드릴께요."

"그래도 되겠어요? 하두 염치가 없는 것같아서…."

"아니예요. 시차 때문에 잠도 잘 못자셨을텐데. 들어가서 눈 좀 붙이세요."

나는 만난지 불과 몇시간 밖에 안된 유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밤의 여자들은 같은 술집에서 일하더라도 서로 미묘한 관계 속에서 경계하며 질투하기 마련인데, 유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싹싹하고 시원스러워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나는 졸리운 중에도 그녀를 내 하수인의 하나로 꼽고 있었다.

◆ ◆

무대에 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 왔을까? 나는 연습을 끝낸 후 분장실에서 땀을 닦고, 화장을 고치며 가슴 설레이고 있었다.

"잘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재미 없는 나라에서 재미 없는 생활에 지쳐있는 그들의 혼과 넋을 빼앗아 버려야 한다."

손으로는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고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잘해야 한다는 결심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탓인지 손이 떨려서 애를 먹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예—"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서고 있었지만 나는 아직 화장하는데 경황이 없어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열심이구먼요."

김사장의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는 얼근히 취한 얼굴로 음흉스럽게 내 모습을 훑어내리고 있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첫날이니까 잘하도록 해요."

그는 어색하게 서있는 내 주위를 한동안 얼쩡거리다 사라졌다. 나는 다시 서둘러 화장을 마무리했다. 무대시간 2분을 남겨두고 무대로 가기 위해 분장실을 나왔다.

무대가 가까워 올수록 웅성거리는 소음과 술냄새가 풍겨 지겨운 생각이 스쳐갔다. 서울에서 가끔 나는 홀안에 들어설 때에 진저리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술냄새와 남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때문이었다. 술냄새와 남자들의 소음소리는 수많은 남성들이 나를 짓밟으러 몰려오는 환각으로 나타나 진저리를 치게 했다.

그런 날은 나의 의붓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여관주인의 능글맞은 얼굴과 나를 농락하던 남성들의 모습이 악령처럼 달라붙어 춤을 출 수가 없었다.

나는 환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정신을 바싹 차리며 무대의 막뒤에 서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계속)

교민친선낚시대회

23일 겔프 벨우드공원

토론토한인낚시협회(회장 이장관)는 오는 5월23일(월)겔프(Guelph)에 소재한 벨우드 콘서베이션 파크에서 연례 한인친선낚시대회를 개최한다.

바쁜 생활가운데서 잠시나마 도시를 벗어나 교민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봄과 함께 협회원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갖는 이번 대회에 많은 교민의 참석을 요망하고 있다.

행사에 대한 연락은 전화 (416)499—3299, 259—7422, 293—0117로 하면 된다.

◆송어낚시의 시즌을 맞은 30일 보우맨빌 크릭(Bowmanville Creek)에서 열린 송어 더비(Trout Derby). 밀집해 출선 낚시꾼들이 송어낚기에 열중하고 있다.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신청은 533—2361
토론토 한국일보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LL SHOW YOU.

잠겨있는 캐비넷 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다. 이때 보고 있던 친구가 「내가 여는 법을 가르쳐 줄께」 I'll show you.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여주다」 「가르쳐주다」의 의미로는 이 표현을 사용한다. 상대방이 「운전하는 법을 모르는데요」 I don't know how to drive. 했을때 「제가 가르쳐 드리죠」 I'll show you. 또한 「화장실이 어딘가요?」 Where can I wash my hands? 라고 묻는 경우 「제가 안내해 드리죠」 I'll show you. 라고 하면 된다.

또한 타주에서 방문한 친구에게 「시내 구경을 시켜 드리죠」하는 경우는 끝에 around만 붙여서 I'll show you around downtown. 하면 된다.

A: Excuse me. I wonder if you can help me.

B: I'll try.

A: Can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drug store is?

B: Sure. In fact, I'll show you.

A: Thanks.

B: Not at all.

A:실례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B:도와 드리도록 힘쓰겠읍니다.

A:여기서 가장 가까운 약방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는지요?

B:그러믄요. 실제로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A:감사합니다.

B:천만에요.

※I wonder if~:~할수 있을런지 궁금하다.

in fact:사실은, 실제로.

not at all:천만에요.

흔히 쓰는 표현으로 you're welcome.이 있다.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 됩니다. 가격은 권당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966—4050

한국요리의 전통을 이어
한국적인 멋을 겸비한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
자신있는 요리솜씨!

*최고의 진미 *저렴한 음식값

년말파티 예약 접수중,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 531-0277 영업·오전10시~새벽 1 시

한국관

"20명 더 毒殺 脅迫쪽지"

연쇄毒殺사건 乙支病院서 발견…警察·병원 超緊張

① 怨恨관계 ② 피해자 주변 ③ 社會불만

搜査초점 3갈래… 端緖 못잡아

廉弼洙씨(37) 독살사건이 발생했던 서울乙支병원에서 26일밤 『앞으로도 20명을 더희생시키겠다』는 내용의협박쪽지가 발견돼 경찰과 병원당국을 긴장시키고있다。

또 乙支병원에서는 廉씨(26일)와 崔英子씨(16일) 사건전인 13일과 15일에도 별관 5층 주방에서 독극물이든것으로보이는우유와 요구르트가 무더기로 발견돼 독살극은 모두 4차례에걸쳐기도된것으로확인됐다。★관련기사10·11면

협박쪽지는 廉씨가 숨진 26일하오9시15분께 이병원4층 남자화장실에서 裵安植씨(48·농업·4·5·9호 입원환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는데 『억울하게 희생들을 당하셔서 죄송스럽습니다。이 병원에 입원한 죄입니다。앞으로도 20명은 더희생을시킬것입니다。빨리들 다른병원으로 옮기시오』라고 썼다。

신고를받은 경찰은 협박편지의 필적을 감정하기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

한편 이병원 연쇄독살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江東카바레요구르트독살사건과 동일범 또는 이를 모방한 범죄로 보고 탐문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27일하오현재 단서를 잡지못하고있다。

경찰은 범인이 처음두차례 우유와 요구르트를 5층주방에 놔뒀으나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고 세번째는 농약을 넣은요구르트를 전화로 전달했는데 「독살」에 실패하자 네번째인廉씨사건때는 직접병원에 나타나 환자가족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우유를 전해 결국 입원환자를 숨지게 한것으로보고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처음불특정다수인을 노렸다가 실패하자 입원환자 명단을입수、접근한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이연쇄독살극 사건을▲병원을 둘러싼 원한관계▲숨진 廉씨등 피해자주변▲사회에 불만을 품은사람등 크게 세갈래로 나눠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범행에 사용된 음료수가 모두 B사제품이란 사실도 중시하는 한편 농약이나 청산가리등 독극물을 취급하는 상점과 함께탐문수사를펴고있다。

청산가리檢出 확인

국립 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16일 발생한 요구르트 독살미수때 사용된 16통의 요구르트병에서 모두 파라티온으로 보이는 농약이、그리고 廉씨가 마시다남긴 우유를 포함한 우유5통 모두에서 청산가리가 각각 검출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26일밤 협박편지가 발견된 乙支병원 4층 남자화장실。(×표지점에 4각으로 접은 협박쪽지가 놓여있었다)

"딴病院 옮겨라"

협박쪽지 犯人지문채취 실패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7일 4층화장실에서 발견된 협박쪽지에서 지문6개를 채취했는데 이중5개는 쪽지를 발견한 환자 裵安植씨(48)의 것으로 밝혀냈으나 나머지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1개는 상태가 선명치않아 감정에 실패했다。

전국에 몽타지手配

한편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인 숨진 廉씨의 장남 眞成군(11)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지를 작성、전국에 공개수배키로 했다。

統一憲法은 검토단계

國會11개常委 "財閥 부동산투기抑制대책은"

◇全대통령이 우수선수들을 접견하고 있다。[崔東完기자찍음]

국회는27일 經科·國防委를 제외한 11개常委와 입법지원 特委를열고 소관부처에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財務委 李慈憲 高判南 李敏寧(이상 民正) 池楨道 韓光玉 洪思德(이상 民韓) 趙炳九(국민) 李洙鍾의원(議政) 등은 이날 정책질의에서▲三寶증권 時在 부족사건 ▲부가세를 포함한 稅制의 근본적인 재정비방안▲일부지방은행의 부실경영문제 ▲장단기 금리정책 개편문제 ▲재벌기업의 은행부채강제회수문제▲재벌의 부동산투기억제 상법등을 물었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들은 三寶증권문제에 대해 『三寶증권의 時在부족원인은 허위증자、창구사고와 매損등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증권감독원은 책임을져야한다』고 추궁하면서 『三寶증권의 時在부족액이 1백97억원이라는데 사실인가』고 확실한 액수를밝히도록 요구했다。

商工委 梁桂植 文龍珠(이상民正) 許京萬 孫泰坤(이상 民韓) 金永生(국민) 金順圭의원(議政)등은▲앞으로의 油價정책기본방향 ▲앞으로 국제원유가가 더 인하될경우 국내油價 반영비율▲油價인하와 금리인하로인해 연탄값의 인하요인이 발생한데따른 연탄값인하폭과 시기등을 물었다。

徐相喆동자부장관은 답변에서 『국제원유가격이 다시오를때 완충재원의 범위안에서 국민경제를 고려、국내유가조정의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이번에 마련된 安定기금은 전원개발사업에 사용하는 대신 국민부담기금을 중소기업위주의 연불수출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建設委 金宗鎬건설장관은 답변에서 『지금까지 수 [illegible]

[illegible] 있던 기존골프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대시설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文公委 李振羲문공장관은 『중앙청의 박물관계획은 이미 기본설계가 끝나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오는6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 [illegible]

運營委 孫在植통일원장관은 27일 南北統一헌법은 一韓 인구비례에 의한 總選을 실시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주요골자』라고 밝히고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통일 헌법의 제정을 北韓에 제의한뒤 각국의 헌법제도와 分斷國의 立法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illegible]

"戰爭물자 다각備蓄"

全대통령、安保회의서 강조

全斗煥대통령은 27일『앞으로 전쟁이 일어날경우 彼我의 무기체계가 대단히 고도화 되어있어 狀況전개는 6·25때와는 많이 다를것』이라고 전제、『제일중요한것은 전쟁발발 첫날이며 늦어도 3일안으로 大勢가 판가름날것이기 때문에 만약의사태에 대한대비태세는 초기부터 완벽을기할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非常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이같이 강조하고 『전쟁은 군과 경찰만이 하는것이 아닌만큼 사태가 발생했을때 사용할 모든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전쟁발발시의 주민이동및 통제는 매우 중요한문제이므로 실효성있는 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며 물자비축도 단순한 물량위주가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內實있게 실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우수選手 33명招致 全대통령、善戰치하

全斗煥대통령은 27일 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킹스컵 국제복싱대회에서 金메달을 차지한 金光善선수(19·東國大)、WBC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張正九선수등 최근 국내외운동경기에서 國威를 떨친 男女우수운동선수 33명(男26·女8명)과 임원 2명을 청와대로 초치、오찬을 베풀고 善戰을 치하했다。

李外務 訪美길에

李範錫외무장관이 美행정부및 議會지도자들과 韓美양국의 공동관심사를 협의하기위해 27일 하오 KAL편으로 出國했다。

[illegible] 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내新聞중 가장 큰活字 한국일보

6월 IMF와 대기성借款협정

4억6천만弗線 예상

정부는 올해 소요될 외자의 원활한 확보를위해 IMF(국제통화기금)와 대기성차관(스탠드·바이)협정을체결, 오는 6월중 제공할계획이다。차관규모는 4억2천만 SDR(IMF특별인출권, 약4억6천만달러상당)규모로 전해졌으나 아직은 유동적이다。

27일 재무부에의하면 대기성차관 협정을위한 IMF협의단은 지난주초 내한했다가 27일돌아갔는데 이번협정이 체결되면 국제수지보전을위한 소요외자 확보라는 실익도있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인도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不景氣속 精油5社 호황

작년純益5백58億

불경기가 지속됐던 작년 한햇동안 국내정유 5개사는 5백58억원의 순익을 올린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동자부의 국회보고자료에따르면 정유5개사는 지난82년중▲정유부문에서 5백29억원▲석유화학、윤활유및 벙커C油수입판매등 기타부문에서 29억원등 모두 5백58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업체별로는▲유공이 1백59억원▲湖南精油가 1백53억원▲京仁에너지가 1백23억원▲雙龍정유가 96억원▲極東石油가 27억원씩 순익을 냈다。

5개社의 연도별 수익상황은▲78년 2백85억원▲79년 1백94억원의 순익을 올렸으나▲80년과 81년에는 각각 4백84억원및 2백21억원의 적자를 기록、78년부터 82년까지 손익을 감안하면 5년간 3백32억원의 수익을 내 1년간 평균66억원을 벌었다。

4일 3黨3役회의 政治議案 논의키로

民正·民韓·국민등 3黨은 오는 5월4일 상오 11시 국회의장실에서 3黨3役회의를 갖고 국회법 地自制등 모든 정치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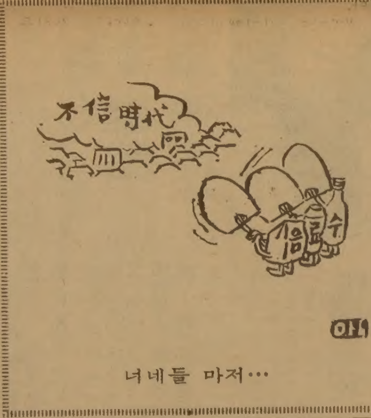
經濟·商工연석회의 내일、油價정책따져

국회는 29일상오 經科·商工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국제原油價 인하분중 30%만 국내油價에 반영한이유와 앞으로의 油價정책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地自制 小委위원장 全炳宇의원을 선출

국회內務委의 地方自治制 심사小委는 27일상오 제1차회의를 열고 小委위원장에 全炳宇의원(民正)을 선출했다。

社會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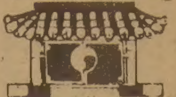
너네들 마저…

地平線

오늘날 세계제일의 부자는 30억달러를 가진 다니엘·K·라도빅 이라고 한다。아마존강유역개발에 손을댔다가 10억달러나 손해를 보았지만 아직도 그의 위치는 흔들리지않고있다。그다음으로는 중동 석유산출국의 왕들 이다。재벌로는 [illegible]

[illegible] 이번에 밝혀진 우리국내상속·재산내역을 엿핏 보아도 1억원이상 상속세를낸 사람 가운데 여자 이름이 몇명 끼어있다。한 마디로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대충 알수있다。▼영미법 에서는 상속인 으로 자녀들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농신전부、부동산의 절반을 차지하는것이 관례로 되어있다。여권존중의 풍토를 알려주는대목이다。프랑스민법에서는 배우자는 제일친인 직계비속과 비슷한 비율이지만 그권익은 차츰 강화돼 가는 추세이다。이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배우자 상속권은 외국보다뒤지고 있는것을 인정안할수 없다。▼한데 22년 동안 우리국내에서 1억원이상 상속세를 낸 사람은 88명이고 1억원이상 증여세를 낸 사람은 43명정도로 나타나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없지않다。어느기업의 한 1世가 1백12억원을 물려준것 외에도 좀더 큰 부자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 인것이다。화려했던 재벌활동에 비해 유산이 너무적게 신고된것 같다는얘기들인 모양이다。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다는 말도 있으니 진부는 더 두고 볼수 밖엔 없겠다。▼흔히 재산은3대를 가기 힘든다고들한다。1대는 창업을하고 2대는 守成으로 그기반을굳히며 3대때 팽창해야 그재벌은 오래 간다는 뜻이다。우리 늘래의 재벌들도 재산분산에 앞서 후계인재의 양성에 더욱 큰역점을 두었으면하는 생각이 함께 떠오른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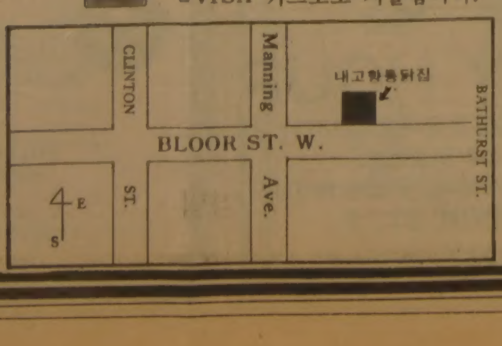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내고향통닭집

가격뿐만 아니라 맛도 아주 달라졌읍니다.

내고향통닭집
658 1/2 BLOOR ST. W.
☎537-0432

□거리에 따라 주문배달합니다.
□VISA 카드로도 지불됩니다.



내고향메뉴

우동	$2.95	오뎅백반	$3.50
짜장면	2.95	칼국수	3.25
냉면	2.95	생선초밥	3.95
통만두	2.95	불고기백반	4.95
곰탕	2.95	갈비백반	4.95
김초밥	2.95	떡만두국	3.25
비빔밥	2.95	생선찌게백반	3.95
빈대떡	2.50	두부찌게백반	3.50
		순두부찌게백반	3.50
		된장찌게백반	3.50
		곱창전골 2인분	9.00

社說

연쇄毒殺事件의 충격
—動機없는 犯行眞相 꼭 가려야

독극물을 탄 우유와요구르트를 사용하여 「아무나 먹고 죽으란」는 식으로 애매한 희생자들을 부른 연쇄毒殺事件은 아직 이렇다 할 수사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그런는동안 疑心暗鬼의 不信풍조와 사회不安이 적잖게 만연되는 느낌이다.

서울 乙支병원에서 발생한 「독살극」의 경우 지난 16일 요구르트에 독극물을 넣은것을 환자가족이 마셨다가 바로 토해 무사했으나 10일후인 26일에는 드디어 청산가리가 든 우유를 마신 입원환자가 숨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에앞서 이병원에선 지난13일과 15일 주방에서 독극물이 든것으로 보이는 우유와 요구르트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었다. 한데 그에대한 감정을 제대로 하지않았고 초동수사단계에서 병원측과 관할경찰이 사건을 감추는데 급급하여 예방과 경계를 소홀히 했다는 보도였다.

우선 이러한 경위로 미루어 治安당국은 국민環視속의 公信力회복을 위해서도 犯人검거에 최대의 발분을 보여 그 해괴한 범행진상을 가리고 재발 방지에 전력투구해 마땅할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이미 널리알려진것처럼 지난달 17일엔 江東카바레에서 화장실에 놓인 독물유산균음료를 마시고 종업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었으나 이 역시 지금껏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한 모양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이라 하지 않을수없다. 이런 일련의 연쇄 毒殺事件의 공통점을 간추리면서 당국은 이 新種犯罪의 유형을 일단 不特定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無動機(?) 殺人事件으로 추정했다는 소식이다.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재물을 탐내거나 피해자주변과의 원한관계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에보태 일부「전문가」들은 외국에도 작금에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례를 들면서 「社會病理學的 진단」이라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견해를 밝히고있다. 즉 외來文化범람과 産業社會 발전속에 문제되는 「疎外感」을 쳐드는가 하면 現代人이 목적없이 살아가고 이유없이 반항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지적한것으로 들린다.

물론 그같은 견해에도 一理는 있어보인다. 또 이사건의경우 世態문제와 관련하여 범죄자를낳게한· 사회적 병폐를 반성할수도 있다. 하나 그것은 犯人검거와 취조후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같은 막연한 一般的견해보다 구체적·체험적 동기가 더 중시되게 마련이었다.

새類型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꼭 지적하고픈것은 우리들레 극소수 民性에 서린「恨」의 무서운 毒氣이다. 예부터 사고력이 빈약한 일부사람들은 이른바 「물귀신근성」의 포로로 돼 왔었다.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면 不特定다수인을 대상으로 「남들도 좀 당해보라」는따위 비열한 심보다. 예컨대 축바람등으로 가정이 파탄됐거나 가족중 누군가 경제사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지못했다든지 의료사고를 당한데 대해 「恨」맺힌 사람이 과녁없는 활을 쏘는 격으로 울분을 발산시키려드는 경우다.

그러나 이같은 허망한 시도는 恨풀이가 또다른 恨을 불러오는 원한의 악순환일 따름이다. 우리사회 어느 구석에선가 전전긍긍하고있을 범인에게 타이를수 있다면 이제 그러는 억울한 사연에 관한 문제제기는 표시된 셈이니 더이상 무고한 희생을 늘리거나 恨을 확연시킴없이 최후의 양심에 물어 떳떳하게 자수해 마땅하리라는 것이다.

恨의 毒氣에 서린 「살아있는물귀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속히 색출, 발본돼야한다. 우선 이를 위한 마음가짐과 활동은 한결같아야 할것이다. 그같은 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성찰은 그 다음의 일이다.

營農지원 失機없게
—增産위한 資金放出 서두를때다

가장 중요한 농사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농민들이 갈망하는 영농자금과 농기계구매·수리값은영농지원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될 일이다.

특히 올해는 냉해를 예방하고 3천8백만섬 쌀수확목표를 확보하기위해 예년보다 10일앞당겨모내기를 실시하려 하고있다. 그런만큼 영농을 돕기위한 정부차원의 온갖 지원대책여시 서둘러 강조돼야 하겠다.

며칠전 보도를 보면 요즘 전국농촌에서는 「穀雨」를 전후한 봄비가 비교적 풍부하게 내린데 힘입어, 모내기를 앞당기고자 못자리가꾸기가 한창이라는 것이다. 한데 반해 農協을 통해서 진작부터 공급될것으로 기대되던 영농자금방출이 때를 맞추지 못하여 농사활동에 차질이 생기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소리들이 없지않다고한다.

사실 4월로 접어들면 비료·못자리용비닐·농기계구입·인건비 전조작업등에 필요한 그 자금수요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된다.

경운기·이앙기를 비롯하여 거액이 소요되는 농기계구입과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 일손 부족의 품삯을 감당하는데도 적지않은 돈이 필요한 실정일 것이다.

대부분의 농가는 지금 현금이 그리 있을리 없다. 82년말 현재 전국농가의 평균부채가 82만 9천여원에 달하고 있다는 표본조사가 가리키듯이 거의 모든 농가들이 농협·私債·새마을금고 빚을 얻어쓰고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농협을 통한 추가 자금지원을 받지못하면 앞으로 영농에 지장을 받을 우려는 적지 않아 보인다.

영농자금방출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은 여러가지 일 것이다. 하나 무엇보다 그 주종적 공급자인 농협의 2·4분기 자금계획에 대한 주무당국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되고있다. 해마다 그랬듯이 농협의 자체자금만으로는 태부족이므로 한은재할인계획을 포함한 정부차원에서의 자금수급계획이 먼저 확정돼야 할 실정이다.

이미 黨政정책조정 회의를 열고 올해 영농자금의 조기확보를 위해 현재 30%로 돼 있는 농협에 대한 한은再割引비율을 50%로 대폭확대하고 동시에 2·4분기안에 지난해보다 1천억원이 많은 3천3백억원의 영농자금을 방출키로 합의를 본것으로 전해졌다. 하나 아직 실행에는 이르지 못한 모양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 모두가 쌀증산을 위해서는 조기영농에 차질이 없어야하고 그러자면 영농자금의 적기방출이 필수불가결하다는데 뜻을 모은 결과라 하겠다.

쌀농사는 다른 特用作物재배와 달라 계약재배나 先金을 받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농협을통한 영농자금의 적기공급이 가장바람직한 지원책으로 생각하게된다. 따라서 즉 자금공급에 실기함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들인 것이다.

이제 우리농촌도 지난날의 가난한 농가경제시절을 많이 벗어났다. 얼마인되는 영농자금을 영농아닌 다른자금등으로 소진해버리는것같은 그런 수준의 농촌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영농자금을 제때에 충분히 공급한 만큼 그효과 또한 확실해진다하겠다. 이런 신념아래 영농자금의 지체없는 방출에 과감성이 따라 주었으면 한다.

"KGB협력 日人 4명 더있다"
레프첸코 폭로 外務省직원·大學교수·記者등

【東京=聯】 소련의 前KGB첩자였던 스타니슬라프·레프첸코는 지난25일까지 수차례에걸쳐 일본마이니찌(每日)신문駐美특파원과 회견을갖고 美리더스·다이제스트지에 밝힌 24명의 對蘇일본인스파이협력자이외에 현재 외무성등에서 활약하고있는 또다른 4명의 새로운 협력자들의 암호명과 활동상황을 공개했다고 마이니찌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마이니찌는 이날 워싱턴발기사에서 레프첸코는 日외무성에 나자르란는 암호명의 소련스파이 협력자에 렌고(連合)라는 암호명을 가진 또다른 협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한편 바론 아기스 브라트라는 암호명을가진 학자、주요신문기자、東京대학교수등 3명의 소련스파이협력자의 활동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마이니찌에의하면 레프첸코는 특히 외무성의 소련스파이협력자 렌고는 KGB가 특히 중요시하는인물로 현재까지도 도쿄주재KGB에 비밀정보를 계속전달해왔다고 밝히고 바론은 미국에 정통한자로 美·유럽의 대서양의회활동에 참가하면서 KGB에 정보유출이외에 소련이 희망하는대로 여론을 조작해왔으며 아기스는 일본 대신로 모스크바주재중 사생활에 약점이잡혀 도쿄에서 계속 소련스파이협력자노릇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美·埃 레바논外軍철수 合意
조지·P·슐츠美국무장관㊧과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26일 회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그들이 모든 레바논주둔 외국군이 조속히 철수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카이로26일AP電送=聯】

蘇潛艦 領海침범 스웨덴 엄중抗議

【스톡홀름AP=聯】 스웨덴은 26일 소형有人잠수함3척을 포함한 소련잠수함6척이 지난해 10월 스웨덴영해를 침범, 무스코비밀해군기지주변에서 출동했다고 비난하고 이같은 영해침범사건에 대해 소련측에 엄중항의했다.

올로프·팔메 스웨덴 수상은 스톡홀름주재 소련대사 보리스·판킨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고 소련잠수함의 스웨덴영해침범은 이미 계획된 불법행위였다고 지적하면서 소련이 소련해군에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도록 지시해줄것을 요청했다.

政府軍·叛軍 전투치열
아프간 카불주변 數個지역 蘇軍 헬機도 猛爆

【뉴델리AP=聯】 소련軍및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회교叛軍간의 치열한 전투가 카불주변 수개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한西方외교 보고서가 26일 밝혔다.

이보고서가 인용한 카불외곽 하르가지역 방문자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하르가에서 15㎞떨어진 하계휴양지 파그만근처 계곡일대에는 지난22일 헬리콥터를 동원한 소련군의 맹렬한 폭격이 있었으며 23일에도 越冬후 파키스탄국경을 통해 새로운무기를 공급받은 반군과 아프간정부군들이 전례없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보고서는 소련군이 파그만지역에 10개소의 전초기지를 건설했으며 파그만에 다수의 아프간정부군들이 배치된 것이 여행자들에의해 목격됐다고 말했다.

美중거리核 西歐배치필요
레이건·나토總長, 蘇협상誘導위해

【워싱턴UPI=聯】 레이건 대통령과 요세프·룬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사무총장은 26일 소련을 중거리核미사일감축협상에 타협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美중거리핵미사일의 西歐배치가 필요하다는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룬스사무총장은 백악관에서 레이건대통령과 회담한후 『서구의 일반적인 여론은 소련이 美중거리核미사일의 서구배치가 개시될 때까지 협상진전을 포기한채 기다릴지 모른다는 것이며 美행정부도 이같은 사실에 공감하고있는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日 국제무역박람회 한국관들러 큰關心
아끼히또 皇太子

【東京=宋孝彬특파원】 아끼히또(明仁) 일본황태자는 27일상오 東京 하루미(晴海)에서 열리고있는 국제무역박람회 한국관에 들러 청자등 한국수공예품에 많은 관심을보였다.

아끼히또 황태자는 이날 일본관과 소련관에이어 한국관에 입장、흑상감과 나전칠기등 수공예품을 일일이 보고난뒤 『한국에서 이런공예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묻기도했다.

油價85년까지 배럴당 29弗線유지
야마니石油相 사우디誌회견 밝혀

【매나마=聯】 아메드·자키·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상은 석유가가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85년까지는 배럴당 29달러선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26일 보도되었다.

야마니석유상은 리야드에서 발행되는 알·야마마誌와의 회견에서 최근 런던에서 결정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가및 생산량쿼터는 사우디의 건전한 석유정책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葡사회당 聯政될듯
總選36%·99席확보

【리스본AP=聯】 마리오·소아레스 前수상이 이끄는 社會黨은 26일 실시된 포르투갈 총선거 개표결과 36%의 득표율로 전체의석 2백50석가운데 99석을 확보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나 절대다수를 확보치못해 단독집권은 불가능해졌다.

총선거 개표결과 社會黨이외의 각 정당득표율은 社會民主黨 27%(72석) 共産聯合人民同盟 18%(44석) 그리고 民主社會中道黨 12%(29석)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외信안테나

체르넨코 감기앓아 곧執務 失脚說부인

【모스크바AP=聯】 蘇聯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의 최대 政敵으로 알려진 콘스탄틴·체르넨코(71)가 그동안 가벼운 감기에서 회복되었으며 곧 집무를 재개할것이라고 그의사무실이 26일 발표했다.

체르넨코는 지난달 30일 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중병설과 실각설이 나돌았었다.

콜 西獨首相 訪中초청수락

【본=聯】 헬무트·콜 서독수상은 지난해 10월 수상취임이후 처음으로 중공을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수락했다고 서독공보실이 26일 밝혔다.

공보실은 콜 수상의 중공방문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콜수상의 중공방문은 미국의 對臺灣군사무기 판매를 둘러싸고 소원해진 미·중공관계와 중·소 화해전망을 분석、측정할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美·比최대규모 合同군사훈련 시작
양국 萬4천兵力·美군함 15척참가

【마닐라PNA=聯】 미국과 필리핀은 2차대전후 최대규모의 합동군사기동훈련을 26일 개시했다.

「발리카탄·탄젠트·프래시83」이라고 명명된이훈련에는 양국에서 약1만4천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美7함대소속의 航母 코랄·시號를 비롯, 15척의 美군함과 필리핀주둔 클라크美공군기지의 제트전폭기수개중대및 필리핀측에서 수척의 함정과 砲艦및 초음속F5요격기등을 비롯한 전투기들이 참가하고있다.

엘살바도르軍援 美下院대폭삭감

【워싱턴AP·UPI=聯】 美하원 외교위원회세출소위원회는 26일 레이건美대통령이 요구한 對엘살바도르 추가군사원조자금 6천만달러를 절반으로 삭감했다.

세출소위(위원장 클래런스·롱)는 이날 엘살바도르軍援자금 6천만달러 지출법안을 7대5로 부결시키고 그대신 4개 부대조건을 첨부, 3천만달러의 지출안을 승인했다.

蘇 코스모스號발사

【모스크바AP=聯】 소련은 26일 인공위성 코스모스1457號를 발사, 지구궤도에 진입시켰다고 관영타스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통신은 외계탐구임무를 띤 코스모스1457號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매90분마다 고도 1백80㎞~3백76㎞사이의 궤도를 돌고있다고 밝혔다.

金正日에 忠誠선서

【서울=聯】 北傀는 노동당을 비롯한 주요부서에 새로 배치되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한 선서에 金正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선서를 받아내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北韓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한바에 의하면 北傀주요부서 근무자들의 金正日에대한 충성선서는 北傀노동당을 비롯, 주민사상탄압기구인 정치보위부, 北傀黨외곽단체로 청소년조직인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및 金正日호위부대등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이라크機 또大空襲
이란 百20여명死傷

【니코시아(키프로스) AP=聯】 이라크 공군기들이 25일 이란 서남부 흘에·독타르답을 폭격하여 1백여명이 부상했다고 이란관영IRNA통신이 26일 보도했다.

IRNA통신은 흘에·독타르답의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이라크공군기들의 폭격으로 건물20채가 파괴되고 학교를 비롯 10여채의 가옥과 상점이 부서졌으며 사망자중에는 임산부와 어린이7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印 꼬리달린畸形兒
두눈사이에 긴이빨

작은 꼬리가 달리고 툭튀어나온 두눈사이에 긴이빨이 나있는 기형아가 인도에서 태어나 화제가 되고있다.

17일전 이곳에서 태어난 이기형아는 건강한데, 근처지역에서 구경꾼들이 몰려오고있다.

이지역 의사들은 이아기에 대한 수술을 할 능력이 없다면서 부모들에게 대도시의 큰병원으로 데려가보라고 권고했다. 【PTI】

週刊 張榮澤차장등 「페리」취재차 向日

한국일보社 週刊편집국 週刊한국부 張榮澤차장과 週刊사진부 金孝烈차장은 韓·日정기항로에 국적선으로 처음 취항하는 페리부관호에 동승, 취재하기 위해 27일 상오 日本으로 떠났다.

海外토픽

佛 1천여養豚농부 트럭몰고 農相면담

프랑스의 브르타뉴지방에 사는 1천명의 성난 양돈농부들은 26일 3백대의 호송차량과 탈취한 수입돼지고기를 실은 1대의 서독트럭을 몰고 미셸·로사르 농업상을만나 정부의 농산품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파리로 몰려들었다.

돼지고기가격 인상요인이 되고있는 유럽공동시장보조금과 세금에 불만을갖고있는 이양돈농부들은 탈취한 트럭을 서독에 돌려줄것과 시위를 조용하게할것등 2가지조건을 수락하고 로사르농업상과20분동안면담하여 그들의불만을표시.

이농부들은 약속대로 면담이끝난뒤 트럭을 자신들이 에스코트하여 서독으로 돌려보냈는데 프랑스에서는 최근 많은 농부들이 농산물가격에불만을갖고곧잘 시위를벌이고있다. 【AP】

離婚위자료 5억弗 사우디 富豪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호 모하메드·알·파시씨와 결혼했던 벨기에태생의 데나·알·파시 여사는 이혼위자료조로 약5억달러를 받게될것같다고 그녀의 변호사 마빈·미첼씨가 26일주장.

미첼씨는 모하메드·알·파시씨의 재산이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하고 『그가 부인의 합의이혼소송공판에 나타나지 않았기때문에 스스로 변호권을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데나·알·파시 여사의 위자료청구소송의 승소가능성을 전했다. 【AP】

◇「재클린」「캐롤라인·케네디」로扮裝
故존·F·케네디前美國 대통령의 재임시절을그린드라머「케네디」에서 재클린·케네디여사의역을맡고있는女優 블레어·브라운양이 촬영도중 캐롤라인·케네디양으로 분장한나·말론(3)양과 휴식을 취하고있다. 영국TV사가 제작중인 이7시간짜리 드라머는 오는11월 美國의 NBC방송이 방영할예정이다. 【오스터벨트UPI電送=聯】

政局往來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

金相浹국무총리는 27일 중앙청에서 청소년대책위원회를주재, 『청소년문제는 학교、가정、사회만의 책임일수도 아닌 전체의 책임으로 그중에서도 가정교육이 더욱 중요한 만큼 가정이 중심이돼 자녀들을 잘 가꾸고 한편으론 사회와 학교、정부가 다함께 善導에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강조.

金총리는 청소년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젊음을 발산할 시설과 기회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有害업소의 정리와 시설의 점검등을 제시.

이날 회의에서 金容炸청소년연맹총재는 『청소년들이젊은이답게 활달하게젊음을발산하고자신의견해를 발표할수있는시설과 여건이 부족하다』 鄭漢씨(도덕재무장한국대표)는 『주변환경을 정리해야한다』 趙哲華씨(대한적십자사무총장)는 『젊은이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즐길수있도록 공회당과같은 공공시설을 제공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財閥과 짝자꿍」아닌가

27일 하오 국회建設委에서는질의에 나선 의원들이 저마다 건설부의 자료 제출 不誠實과함께 일관성없는 건설정책을 공격.

이날 曺守富의원(議政)은 『작년 정기국회때부터 어음不渡파동이후 [illegible]의 海外건설업체에 대한 신규자금 대출내용을 제출토록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치않고있다』면서 『건설상관은 마음속에는 뱀이 들어있으면서 입으로는 부처님같은 말로 모면하려하고있다』고 「蛇心佛口」라는 古語를 인용하며 쉬나.

金燦의원(국민)은 『건설부가 직원용 아파트를 건립하고 남은 노지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보았다』고 지적、『국민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여야할 주무부서 공무원들의 이같은 자세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과 배신감마저 느끼고있다』고 공박했다.

李成根의원(民韓)도 『정부가 1백60개 非업무용 부동산 처분업체중 4개업체만 밝히고 나머지는 덮어두려고 하는것은 토지개발공사와 財閥이 짝자꿍하는느낌』이라며 토지소유 上限制채택을 촉구하기도.

답변에 나선 金宗鎬건설장관은 『土開公이 매입했던 기업의 非업무용토지賣却에있어 일부 직원들이 非理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

"마음속에는 뱀이 들어있으면서 입으로는 부처님같은 말로 모면"

經濟的代父가 돼서야

27일의 국회財務委는 26일자정까지도록 실랑이를 벌였던 三寶証券문제로 파란이 있을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의원들은 그저 平易한 언급에 그친 느낌.

이날 질의에 나선 民正黨의 李慈憲 高判南의원등은 통화정책 금리정책 재벌문제등 재정금융분야에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벌였고 李敏燮의원만이 三寶증권문제에관해 추궁.

또한 民韓黨의 韓光玉 洪思德의원등도 三寶문제에대해 보충질의형식으로 간단히 넘어가는등 전날의 기세와는 대조적.

趙炳鳳의원(국민)은 우리나라경제官僚를 신랄히 비판하면서 『국민과 기업은 鐵拳을휘두르는 경제적 代父가되어버린 경제각료들의 「근시안적 시각과 獨善만치는 消防경제 때문에 더부살이를 하고있다」고 질책한후 『재벌기업의 토지매입 부정사건은 亡國的인작태』라고재벌기업에화살.

11년간 21차례나 引上

商工委는 [illegible]위원장이 회의벽두 『29일 經科委와의 연석회의에서 油價문제를 따지도록 되어있으니 오늘 회의에서 油價문제 질의는 되도록 피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의원들은 질의의 대부분을 油價문제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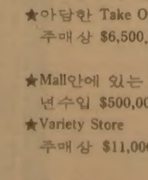
이날 民韓黨의 許京萬의원은 『정부는 油價를 올릴때 보다 내릴때 국민의 怨聲과 분노가 더 [illegible] 이유를 알고 있는가』고 [illegible] 金[illegible]의원(議政)은 『70년 11월17일이후 81년11월29일까지 11년간 21차례나 국내油價를 올리면서 油價연동제를 적용해온 정부가 인하에는 이 連動制를 헌신짝처럼 내 버렸다』면서 「朝令暮改」정책을 비난.

또한 孫泰坤의원(民韓)은 『정부가 여러가지 구실로 국제원유가 인하분의 70%를 떼는것은 국민에 대한 중차대한 기만행위』라고 공격.

이에따라 徐相喆 동자부장관은 『국내油價 30%반영은 단기정책이 아닌 중장기정책에 의해 결정한 가장 효율적인것』이라고말하고 『油價결정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것이며 他부처의 압력을 받은일은 없다』고 설명.

이대환 不動産

★드라이브 인
▲도넛숍 : 주매상 $8,500, 렌트 $2,900, 아스킹 $320,000
▲도넛숍 : 주매상 $9,500, 렌트 $3,500, 아스킹 $319,000
★Mall안에 있는 Fast Food
주매상 $10,000, 아스킹 $320,000
★아담한 Take Out 식당(6일)
주매상 $6,500, 렌트 $500, 아스킹 $160,000
★Mall안에 있는 Gift숍(크리스탈전문)
년수입 $500,000, 아스킹 $14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1,000, 리스 5+5년가능, 아스킹 $13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5,000, 리스 6+10 아스킹 $220,000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세일즈맨 신영하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불루어× 셀본서쪽)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病院원한」에 搜査力 집중

「毒殺기도」 두달새 5차례
원한 가질만한 사람 1千명 넘어

서울乙支병원에서 발생한 연쇄 독극물사건은 독살에이어 『희생을 더시킬것』이란 협박쪽지까지 발견됨에따라 병원과 입원환자들을 새로운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에따라 乙支병원은 물론 서울시내 각병원에서는 환자음식을 감시하고 출입을제한하는등 대책을 서두르고있으며 입원환자들은 병실문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또 각가정에서는 매일 배달되는 우유와 유산균음료마저 기피하는 소동까지 일고있어 이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들도 초비상상태다.

入院費둘러싼 訴訟 10여건
치료중 死亡한 30여명주변
파업관련 解職된직원 위협 電話
羊水검사 잘못 앙심 품었을지도

江東카바레·乙支병원독살사건일지

	일시	피해자	장소	음료(병)	독극물
江東카바레	3월17일 하오10시50분	申東燦(사망)	화장실	B요구르트(80ml 1개)	청산가리
	3월18일 하오8시30분	—	〃	H야구르트(65ml 1개)	〃
乙支병원	4월13일하오	—	별관5층주방	B우유 15개	—
	15일하오7시	—	〃	B요구르트(11개)	—
	16일상오10시	崔英子(회복)	459호병실	B요구르트(16개)	농약
	26일상오5시10분	廉弼洙(사망)	454호병실	B초코우유(5개)	청산가리

협박쪽지

협박쪽지가 발견된곳은 乙支병원별관 4층 남자화장실로 26일밤 9시15분께 459호실에 입원해있던 裵安植씨(48·농업)가 화장실에갔다가 발견했다.

裵씨에 의하면 이날밤주세식양변기에 소변을 보려다 물탱크위에 봉투없이 메모지식으로 4각으로 접힌 흰종이쪽지(가로15㎝、세로20㎝)를 발견했다는 것.

대학노트보다 조금작고 희미한 줄이쳐진 종이위에는 국민학교 3~4학년여자어린이의 필체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했다.

수사에나선 경찰은 현장

쪽지의 글씨는 범인이 대필을 시켰거나 글씨체를 바꾼것으로 환자들이 대부분 병실에모여 TV를보고 있는시간에 갖다놓은 것으로보고있다. 경찰은이쪽지가▲환자나 외부인의 장난 ▲독살극을벌였던범인이수사의 초점을 흐리게하기위한수단▲병원에 원한을가진 전직종업원이나 이병원에서 의료사고를당했던 사람의 보복행위▲병원자체에얽힌 분규등 다각적인방면으로 수사를 펴고있다.

당시 이병원4층에는 남자입원환자16명과 보호자등 20여명이 있었으나 목격자는없었고 외출중인 환자도없었다.

종이쪽지가 발견된 남자화장실은 계단쪽에있어 간호원실에서는 출입자를 볼수없게돼있다.

수사

경찰은 동일범이 4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불특정인을 독살하려 했다는점을 중시, 이병원에 원한을 품은자에의한 연쇄독살사건으로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병원에는 보증인과의 입원비소송문제、입원환자피해자와 가해자사이에 계류중인 20여건의 소송、최근에 있었던 의료사고、재단의 분규등으로 원한을 가질만한 사람이 1천여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이병원에 약품이나 기구를 납품하는업자、해고당한 병원종업원등에 대해서도 수사를펴고 있는데 지난해7월 이병원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던 수명의 식당종업원이 해고당하기도 했다는것.

이와함께 경찰은 독우유를 마시고 숨진 廉弼洙씨(37) 부부가 지난 2월22일 冠岳단위농협에 계약금액 2백만원인 상록공제(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교통사고등 사고로인한 재해사망폐질일때에는 공제금을 6천만원까지 받을수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부인 金亮洙씨(39)가 우유를 마신 당시 상황진술을 처음과달리 하고 있는점등을 중시、부인 金씨의 당일 행적등도 조사중이다.

金씨는 27일경찰에서『우유를 남편에게 자신이따서 건네주었다』고 말한 사실을 번복、잠결에 목이마르다는말을듣고 머리맡에 있는 우유통을 통째로 남편에게 건네준뒤 자신은 다시 잠이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金씨는 남편이 쇄골수술을 받던 지난24일『수술을 지켜보지않고 집에서 잤다』고 말하고있는데 그 이유로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때문에 수술현장에있으면 수혈을 승낙하는경우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있다.

경찰은 부인 金씨가▲사건당시 같은방환자들로부터『남편이 신음하고있다』는 말을듣고 잠에서 깨어나 불을 켜지않은 상태에서 몇차례 흔들어보다가의사에게알렸고 ▲지난16일 요구르트사건이 발생했을때『기자가안오느냐』는등 관심을 갖고있었으면서도 낯선사람이 보내온 우유를 남편에게먹인점▲남편廉씨가 숨지자 친척들에게 이사실을 전화로 알리면서도 갖고있던 5만원권수표1매를 같은방환자에게 맡기는등 사건당시 행동이 석연치 않았던점에대해 수사를 펴고있다.

廉씨의 보험금

숨진 廉씨부부는생명보험에가입할때피보험자와 계약자를 廉씨로했으며 廉씨의 사고시 보험금수령인은 부인 金씨로했다.

이 상록공제보험은 계약금은 2백만원이나 만약 사망폐질시엔 공제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교통사고등 사고로인한 재해사망폐질공제금은 6천만원을 지급받게돼있다.

13·15일범행

지난13일 상오 8시30분께 557호실 입원환자 韓悳壽씨(53·여)가 별관5층 주방밑에서 B회사 제품 종이박스 우유 15통을 발견했다.

韓씨는 이들 우유들을 발견하고『찬장위에 올려놓았었다』고 말했는데 그후 입원환자들의 보호자들이 5층 수간호원 嚴영숙·金경란씨등에게 주인을 찾아달라고 건네주었고 嚴양이 이중 한봉지를 뜯자 심한 약냄새가 나는것같아모두쓰레기통에버렸다는것.

乙支병원의 원한관계

乙支병원연쇄독살극 사건은 범인이 집요하게 이병원만을 노렸다는 점에서 일단 병원내부 사정에 비롯된 원한관계에 의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혹을 남긴다.

지난 1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야쿠르트병등 의문의 음료수는 모두 47개로 경찰은 ▲이병원이 환지보증인을 상대로 벌이고있는 10여건의 소송 ▲병원에입원중인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에 계류중인 20여건의소송 ▲지난해 7월 이병원에서 있었던 직원해고및 이에대항한 파업사건 ▲올들어 이병원에서 치료중사망한 30여명의 환자등에얽힌 원한관계등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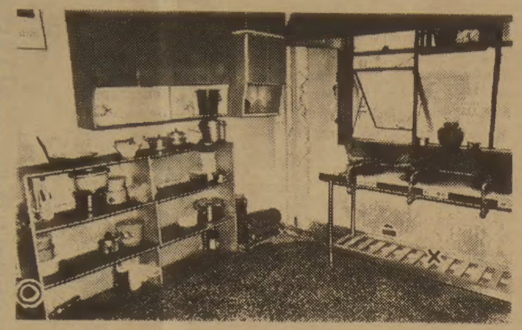
경찰에 의하면 乙支병원의 경우 병원운영과정에서 직원과 환자 또는 그 가족들과 여러차례 마찰을 일으켜왔다는것.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병원에서 해고당한 직원임을 사칭한 남자가 병원내부의 부조리에대해 고발하겠다고 나선적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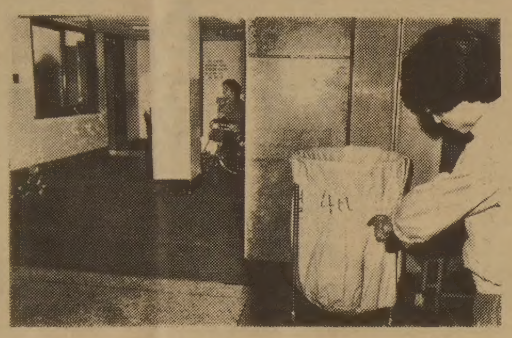
경찰은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이병원재단측의 분규가 계속돼왔다는 정보에 따라 이점에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의료사고로는 지난해 12월 20대 산모가 이병원에서 아들을 분만했으나 병원측이 『두개골파열로 아들이 죽었다』고 해명、산모가 병원측에 정확한 사인을 가려달라고 항의했던 일이있고 또 양수검사에따른 아들딸 판별이 잘못된데에 따른 앙심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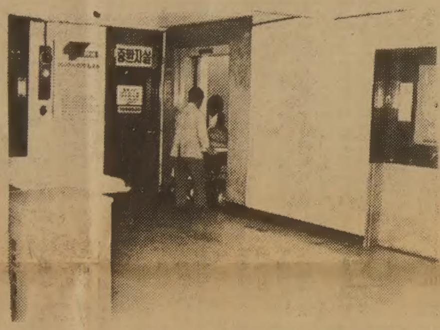
경찰은 26일 발견된 협박편지의 내용중「기병원에 입원한 죄입니다」라는 귀절이 병원에얽힌 이러한 원한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13일 15일 두차례에 걸쳐 우유와 요구르트가 발견된 5층 공동취사장. 13일에는 주방외쪽의자위(○표)에서 우유15개가, 15일에는 가스레인지밑 선반위(×표)에서 요구르트11개가 발견됐는데 환자의신고로피해는없었다.



◇16일 유산균음료 16병이 놓여있던 빨래통. 459호실 환자 崔明植씨(30)의 누나 崔英子씨(50)가 이중 한병을 입에 댔다가 파라티온으로 보이는 농약냄새가 풍겨바로 토하는 바람에 무사했다.



◇26일 眞成군이 20대여인으로부터 우유5개를 받은 3층 중환자실앞. 眞成군은 중환자실옆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버지병실인 454호실로 올라갔는데 다음날 이를 마신 廉弼洙씨가 희생됐다.

버스乘車券 75만장 盜難
大邱 출판사서 보관중

【大邱】27일 상오8시20분께 大邱市中區三德洞3街137의10 삼신출판사(사장 조목래·55)에서 대구시내버스 일반승차권75만장(싯가 8천2백50만원상당)이 도난당했다.

조씨에 따르면 이날아침 공장출입문이 열려있어 공장안에 들어가보니 인쇄해놓은 승차권이 모두 없어졌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사장 李鐵)은 기존승차권을 28일로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승차권을 만들어 대체키로 했다.【聯】

시위 東國大生 징역1년 宣告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재판장 李鐘煥부장판사)는 27일 東國大生 趙承洙피고인(20)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趙피고인에게 징역단기 1년에 장기1년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1년을 선고했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採點잘못合格者4명
監査院 留學시험관련 추가懲戒요구

문교부가 실시한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채점 미스사건에 관한 감사원의감사결과 성적불량으로 불합격돼야할 응시생4명이 채점잘못으로 합격됐음이 밝혀졌다.

27일 감사원이 국회에제출한 감사결과자료에 의하면 기계공학、물리학、수산해양학、교육학부문에서 각각1명씩 모두 4명이 합격권에 들수없는 낮은성적인데도 채점잘못으로 모두합격자로 처리됐다는것.

이를 케이스별로보면 합격점수가 2백75점인 물리학의 양모씨의경우 합격점수보다 6점이낮은 2백69점이며 영어과목이 과락으로 2차전형에 응시할자격조차 없는데도 채점잘못에의해 합격자로 처리됐다는것.

또 기계공학 분야의경우도 합격점수와 순위가 3백15점에 14위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성적2백95점에 전체순위20위인 손모씨가 합격으로 처리됐다는것이다.

감사원은 또 문교부의 시험위원 위촉과 출제및채점과정이 불성실해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시험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문교부가 해당과장과 담당자를 전보발령한것으로 이사건을 종결했으나 그 조치가 미진하다고강조、각각징계처분을 추가로요구한다고밝혔다.

強風…5명死亡
선박7척침몰 30여척파손

26일 하오부터 27일새벽에걸쳐 동반한 강풍으로 전국에서 5명이 숨지고1명이 실종、1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등 인명피해를 냈다.

또한 각항구에 대피중인 선박 7척이 침몰하고 30여척이 파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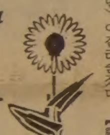
이밖에도 충남·전북지방등 전국곳곳의 보온못자리및 고등소채용비닐 2백여ha와 보리밭60.2ha가 휩쓸렸으며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기도 했다.

강원지방에는 6개 학교의 교실 7개가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 東草교육청은 東草市와 襄陽郡내 42개 초·중학교와 2개고등학교에대해 27일 하루동안 임시휴교령을 내렸다.

중앙기상대는 중국山東반도에서 발달한 9백80밀리바의 저기압때문에 생긴 기압골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강풍이 몰아쳤다고밝히고 27일상오 기압골이물러가면서 날씨는 정상으로 회복될것으로 내다봤다.

지붕붕괴 1명死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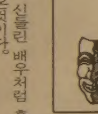
【東海】27일 상오3시께 강원三陟郡近德面府南里2반 金수옥씨(27)의 기와지붕이 강풍으로 무너져 방안에서 잠자던 金씨의 동생 수광군(18·近德중고3년)이 깔려숨졌다.【聯】



히로뽕 30kg제조 일당6명을 拘束

【釜山】부산지검 특수부는 27일 히로뽕원료 전문공급자인 서울 친화약품(주)대표 崔洪龍씨(63·서울江南區方背洞256)와 히로뽕 제조기술자 鄭壽根씨(54·부산南區西川洞7의1) 朴泰均씨(57·서울西大門區延禧洞107의15)등 6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제조기술자인 윤재선씨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聯】

「포스터 장이」
劇場선전물 붙이기 15년 李順鍾씨
배우라고 불리우지않은「배우人生」



현대를「홍보시대」라고한다. 이는 홍보가 생활화됐다는 뜻을 담고있다. 이때문에「인간은 하루하루 홍보의 흐름속에서 호흡한다」고 까지 일컫는다.

포스터쟁이 李順鍾씨(47·사진)는 홍보를 생활화하는첨병이다. 매일 홍보를 싸들고 골목길을 누빈다. 벽에 풀칠을 해야 입에 풀칠을 할수있는 가난한 서민이지만 자신이 붙이는 포스터 한장의 의미와 효과만은 잘안다.

李씨는 15년동안 극장포스터를 길거리에 붙여왔다. 선배의 소개로 이일을 시작한후 벽과 전신주를 무대로 신들린 배우처럼 홍보연기를 해온것이다.

극단에서 공연을 갖는 경우 보통 1천2백~1천5백매의 포스터를 붙여야하는데 솜씨 빠른 두사람이 하루면 붙인다는것.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시의 검인을 받은 포스터라도 막상 붙이려면 마땅한 장소가 없다. 시민게시판이 없는것이 아니지만 가뭄에 콩나듯있다.

더구나 연극은 고객이 대부분 대학생들이라 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는 제약때문에 허가된 장소에만 붙일수가없다.

각극단은 이같은 법과 현실사이의괴리에서 李씨같은 포스터쟁이를 찾게된다. 李씨는 포스터의 효과를 높이기위해 단속의 눈을피해 밤과 새벽에 3~4백장씩붙인다.

새벽이나밤에붙인다고 항상 운이 좋은것은 아니다. 15년동안기억도 할수없을만큼 경찰신세를졌다. 많을 때는 한달에 9번이나 끌려갔다. 어느땐 벌금을 내고나면 극단에서 받은 보수(16만원~20만원)가 전부 없어지기도 했다.

李씨는 10살때 무작정 상경、구두닦이、암표장사등 뒷골목수업을 하다 정치깡패 柳모씨의 문하생이 됐다. 이 덕택에 4·19、5·16때는 교도소에 몸을 맡겨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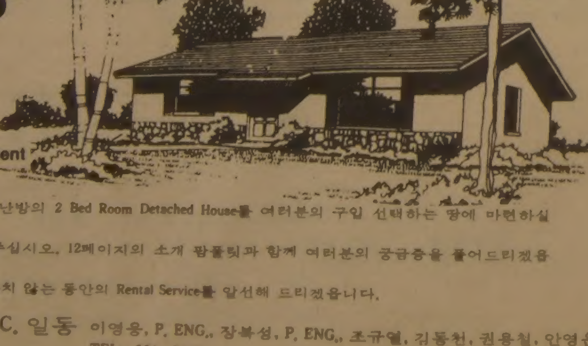
『넓게보면 포스터쟁이도 연극입니다. 그러나 법과 현실사이에서 연기를 하려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의 인생자체가 연극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연극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아픔을 호소할때는 홍보첨병이 아닌 바로 일류배우의 모습이다.【金首宗기자】

당신도 후로리다 휴양지에 별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Springwood Homes inc.

아래 소개된 COTTON-WOOD MODEL HOUSE는 Golf Courses, 학교, 쇼핑센터, 교회, 공원에 인접하고 WALT DISNEY WORLD까지 1시간거리, 그리고 해변에서 10분거리의 멕시코만에 있는 Clear Water 근처의 SPRING HILL COMMUNITY에 건축되고 있는 10가지 Model의 별장중 하나입니다.



The Cottonwood *$21,000 (U.S. funds)

Terms min. 20% down payment

이와 같은 중앙식 냉난방의 2 Bed Room Detached House를 여러분의 구입 선택하는 땅에 마련하실 수 있읍니다.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2페이지의 소개 팜플릿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읍니다.

현지답사와 년중 사용치 않는 동안의 Rental Service를 알선해 드리겠읍니다.

SANG ROCK INC. 일동 이영웅, P. ENG., 장복성, P. ENG., 조규열, 김동천, 권용철, 안영운
TEL : 661-3124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10 6개월 : $55, 년 : $110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국, 戰力재정비 "頂上다짐"

男·女단체 安宰亨·申得花기용 보강

오늘 東京서 세계탁구開幕

【東京=李廷元특파원】제37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오늘(28일) 이곳 요요기 실내체육관서 개막된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86개국 1천5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5월9일까지 열전을 벌인다.

73년 사라예보 영광이후 10년만에 정상복귀를 노리는 한국은 이번 東京대회서 그 꿈을 이룰수 있을지 낙관도 비관도 할수없는 입장이다. 中共勢는 날로 높아지고 신인중심으로 재편성된 日本전력도 상당히 강화, 만만치 않아 한국에 큰 부담을 주고있다. 일본 매스컴들은 지난번 노비사드대회서 준우승한 한국여자팀이 中共에 도전하기에는 실력이 뒤진다고 보고 日本과 남북한이 2위다툼을 벌이게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한국선수단은 대회개막을 하루앞두고 中共 日本 북한등의 정보를 입수, 여자단체전에 金貞美대신 드라이브전문인 申得花를기용, 공격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남자단체전서도 당초계획을 바꾸어 신인 安宰亨을 내세우기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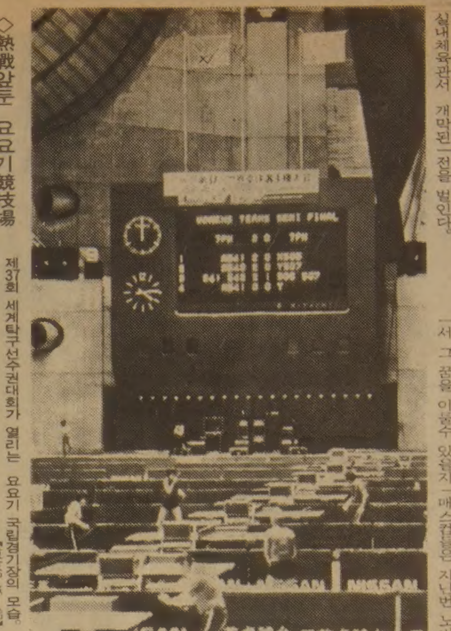
한국팀 金昌濟감독은 西獨서 돌아온 朴利熙가 제페이스를 찾았고 安宰亨의 컨디션도 좋은편이어서 기대만하다고말하고있다.

남자단체전에는 전진속공의 金浣, 金琦澤, 커트수비의 朴利熙가 주전으로 뛰고 양핸드드라이브의 尹吉重과 커트수비의 安宰亨이 상대에 따라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1그룹B조에 속한 한국남자팀은 28일 유럽의 강호 유고및 체코와 대전하는데 어려운 경기가 될것같다. 지난 노비사드대회서 체코는 4위, 유고는 7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9위를 마크했다.

한편 한국여자팀은 이번대회단체전에 梁英子 尹環美 安海淑 申得花등 4명을 기용할 예정인데 드라이브전의 올라운드플레이어인 梁英子와 전진속공의 尹環美는 對中共, 북한, 일본전에 주전으로뛰고 對유럽전에는 커트수비의 安海淑, 申得花가 주전으로출전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은 28일 남녀 단체전 예선리그 2게임씩을 갖는다. 여자단체전 B조 리그서 (9시) 루마니아 (하오1시반)와 대결하며, 남자 A조 리그에서 유고(상오11시) 체코(하오7시)와 경기를 벌인다.



◇熱戰앞둔 요요기競技場 제37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요요기 국립경기장의 모습. 【東京AP綜=聯】

한국선수단 가벼운 운동으로 몸풀어

北韓, 사상처음 등에「DPRK」表記

한국선수들은 27일낮 12시부터 1시간동안 요요기체육관서 가벼운 연습으로 몸을 풀었고 북한선수단은 하오1시부터 1시간동안 연습했다.

북한선수단은 연습예정시간보다 30분빠른 12시30분께 경기장에 도착, 한국선수들의 연습광경을 지켜보았다.

북한선수들은 국제대회 출전사상 처음으로 등에「DPR KOREA」라는 영문표기를 달았다.

북한선수단에는 中共대표출신인 梁戈亮과 張立이 북한유니폼을 입고 트레이너로 함께 와 눈길을 끌었다. 梁戈亮은 서독프로탁구에서 朴利熙와함께 뛴적이있어 朴利熙와 인사를 나누기도했다. 북한선수단은 지난2월 中共에 1개월간 전지훈련을 실시한바 있는데 梁戈亮과 張立은 3월부터 북한에서 선수들을 지도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1년 노비사드대회 이후 은퇴한것으로 알려졌던 북한의 朴英順은 북한팀 코치로 대회에참가, 눈길을 끌었다. 【李廷元특파원】

光商도 心石綜난타…合流 9-2

宋津宇가 世光 살렸다

4회등판 馬山21타자 녹여 8強에

◇악송구로 先取點 4회말馬山高공격。2루타를 치고나간 馬山高2루주자金東伯이 世光高선발투수崔東昌의 1루악송구로 볼이빠진틈에 홈까지 대시, 선취점을올리고있다。世光高가 4-1로 역전승했다。

대통령배 高校야구 강호 釜山高를 꺾고 쾌조의 스타트를 한 世光高가 馬山高를 간단히 제압, 心石綜高를 물리친 光州商高와 함께 8강에 합류했다. 이로써 영남 6개팀가운데 浦鐵工高만 남고 모두초반 탈락했다.

27일 서울운동장에서 속행된 17회 대통령배고교야구 4일째 2회전에서 우완 崔東昌 좌완 宋津宇가 계투한 世光高는 馬山高에 3안타만 내주고 4-1로 승리, 서울의 沖岩高와 준준결승전서 맞붙게됐다.

世光高는 4회말 馬山高 선두5번 金東伯의 2루타와 선발투수 崔東昌의 1루 악송구로 1점을 허용, 수비불안을 노출했으나 에이스 宋津宇가 릴리프로등장, 21타자를 무안타 포볼3개로 막으며 추가점을내주지 않아 승리의 기안을 마련했다.

世光高는 6회초 공격서 1번 玄相根이 좌중월3루타 2번 朴昌達의 중전안타로 동점을만들고 4번 姜熙爽이 좌익수를 넘기는 2루타를날려 결승점이 된 2점째를 올렸다.

光州商高는 心石綜高와 맞서 2번 梁玄基의 3점 홈런을 포함, 스타팅멤버전원이 안타를 기록하는 맹위를 떨치고 9-2로 대승했다. 이날 梁玄基는 4타수 3안타 3타점 2득점의 수훈을세웠다.

◇제4일전적

▲2회전

광주상	000	003	303	—9
심석종	000	000	200	—2

▲홈런=梁玄基(7회·3점·광주상)

세광고	000	002	002	—4
마산고	000	100	000	—1

땅끝에서 오다 <44>

金成一 作 / 宋龍 畵

迷惑의 시대 ⑧

『실은 저도 그것에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있읍니다. 본래 저희 회사에서는 해외여행자들에게 전세계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소록을 나눠주고 있읍니다. 낯선 해외에나가서 갑자기 어려운일을 당했을때 구원을 요청하라는 뜻이지요. 아마 이세원부장도 그것을 한두권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문영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그날밤, 그목소리로보아 몹시 취해 있었읍니다. 그토록 취한여자가 일본에있는 저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외워서 걸었다는점은 사실 저도 잘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점에대해선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도록하고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준호는 다시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머리속이 돌고있었다. 그러고보니 그는 또 저녁을 굶은 채였던 것이다.

(어제부터 나는 인류의 식량절약에 공헌을 하고 있는 셈이군)

일년에 5천만명이 굶어죽고있다는 지구상에서 한두끼 정도 안먹어 해결될 것이라고는 없었지만 준호는 왜그런지 처량한 생각이 들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금년은 어딘가 잘못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실종, 미행, 격투, 살인…그리고 지금 준호 자신은 경찰서 취조실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다.

『전화내용은 어떤 것이었읍니까?』

『그것이 좀 이상했읍니다. 전화 내용은 이런 것이었읍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듯 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빠…에요? 나…영…영실이에요…』

준호는 거기서 약간 간격을 두었다. 자기가 놀라서 되묻고 있던 틈새였다.

『오빠…전…전 글러버렸어요…다 틀렸어요…』

준호는 그 대목에서 다시 담배를 빨았다.

『그러더니 수화기에서는 거친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읍니다. 뭐라구 그랬던가…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미친소리 말구 전화끊어!』

『그리고는 또 무슨 통화가 있었읍니까?』

『네, 바로 전화는 끊겼읍니다. 그때가 바로 1시 3분전이었읍니다. 너무나 뜻밖의 전화였고 깊은 밤중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시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직 좀 남아 있읍니다. 저는 아무래도 뜻밖의 전화와 그 내용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녀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읍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세원은 제친구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있었읍니다만 솔직이 말씀드리면 언젠가 그곳에 전화를 걸어 문 영실의 목소리라도 듣고싶은 막연한 기대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읍니다』

형사들은 이제 완전히 준호의 이야기에 빠져서 넋을 잃은채 열중하고 있었다.

『신호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누군가가 수화기를 들었읍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를 외쳤읍니다만 상대방은 아무 대답도 없더니, 제가 여보세요를 일곱번인가 여덟번쯤 외쳤을 때 전화를 끊어버렸읍니다』

霸權다툼

仁荷大 京畿大

大學배구 연맹전

長身위력 패기의 西江잡아 京畿

2세트서接戰 成大에 쾌승 仁荷

仁荷大와 京畿大가 제18회 전국대학 배구연맹전 남대부 패권을 놓고 28일 격돌한다.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된 대회8일째 준결승전서 京畿大는 鄭義卓(195㎝) 李鍾敬(199㎝)등 두장신의 오픈 공격과 블로킹, 李床彥의 속공이 맹위를 발휘, 패기의 西江大를 3-1로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京畿大와 함께 대학배구의 정상을이루는 仁荷大도 成均館大에 3-0으로 쾌승했다.

仁荷大와 成均館大는 제2세트서 대접전을벌였다. 7-10으로 뒤지던 仁荷는 黃東善의 블로킹, 金敞榮의 중앙강타등으로 10-10타이를 만들고 상대의 공격실책, 金敬雲 金永哲등의블로킹, 李東善의 터치아웃공격으로 14-10으로 앞서갔다.

成均館大도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았다. 왼손잡이 李萬根이 仁荷코트서 떠오른볼을 그대로 강타, 1점을 보태고 맹렬한 추격전을 펼쳤다. 국가대표팀 주장 姜萬守의 친동생 姜和守가 仁荷大 金大植의 왼쪽 오픈공격을 블로킹으로 차단하고 국가대표선수출신 洪基澤이 통렬한 스파이크를날려 成均館은 13-14, 한점차로 따라 붙었다.

그러나 대표출신인 金相保가 너무성급하게 공격을 펼치려다 네트터치, 1실점하며 아깝게 2세트를 잃었다.

仁荷는 제3세트 들어 주전전원이 고르게 활약, 12-8로 크게 리드하고 李龍善의 재치있는 강연공으로 연속 3득점, 15-8로 이겼다.

◇준결승전적

대인하대 3 (15-8 15-13 15-9) 0 관성대균

대경기대 3 (15-6 15-4 14-16 15-5) 1 대서강대

張吉山 <1727>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87)

역시 주무(主巫)는 오계손이 하기로 되었고 맞이굿의 주무는 원향이가 서기로 하였으며 조무(助巫)는 각 지역의 만신 대박수들을 이제 판을 한 대목씩 맡아나가도록 하였으며 바라지와 잡이들은 주로 광대 거사패들이 하기로 되었다.

밤에 곳곳마다 화토불이 피워지고 우선 사선골의 원혼들을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한 해원 수왕굿이 시작되었다. 계손이나 원향은 나서지않고 사선골 사람들이 주동이 되고 산청굿 초부정 칠성굿에서 조상 수왕 마당굿으로 이루어진 열두 마당이 한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사선골과 월정사 사당말 사람들은 간간이 서로 부여잡고 울기도 하였고 사람들이 말리기도 하였다. 그들의 정경을 보아 온 해서의 천민들은 그들의 형제가 구월산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훤히 알 수가있었다. 그들을 서방 정토로 배송하고나서 한동안 분위기는 침울하였다. 연이어 맞이굿이 시작되는데 계손은 잡이석에 앉아서 해금을 켰다. 오랜만에 듣는 오박수의 음률이라 하여 한동안 굿보다 풍악이 먼저 계속되었다. 홍치마에 전복입고 띠를 매고 머리에 꽃갓쓰고 왼손에 삼지창, 오른손에 요령과 부채를 쥔 원향이가 굿판 가운데로 걸어나왔다. 울긋불긋한 옷과 원향의 젊은 맵시는 불빛에 일렁여서 연꽃이나 모란이 피어난듯 하였다. 좌중에서 서로 묻고 대답하는 소리가 퍼져 나갔다.

『저 만신이 어디 만신이래?』

『여기 사선골 살았다더군. 어미와 동생이 창에 찔리고 불에 타죽었다지. 그 뒤로 신이 내렸다더군』

『허어, 맵시 한번 곱단』

『나이는 어리고 저래보여도, 해서 만신 중에 가장 연로하고 영험 있다던 그 안무당 만신의 내림을 받았다네』

『안무당이라면 그 뭐인가…구월산 된복이골의…』

『왜 아닌가. 활빈도들이 끌던 장 장군님의 수양모친이지』

『큰 무당이었지. 내가어려서 어머니를 따라 구월산에 단군제 지내러와서 뵈었네. 떡시루를 물고 두어식경이나 검정춤을 추는데 기운도 천하장사여』

이같은 소리가 퍼져나가 원향이가 해서 만신의 가운데 기둥이 되는 소임을 내림 받았다하여 다른지역의 선무당들이 나와서 빌었다.

원향의 맞이굿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감이 되었다. 원향은 몇번이나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고 시주를 입에 물고 춤을 추어 안무당의 영험이 깃들어있음을 보여 주었다. 오계손을 필두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남부여대하여 구월산의 능선을타고 시루봉(甑山)의 단군대를 향하여올라갔다. 구월산성을 돌아 패엽사의 뒷길로 하여 수십길의 낭떠러지가 깎인듯 선 시루봉 처마 바위에 이르니 동이 트는 중이었다. 처마 바위 밑은 수십여명이 서있을만 하였고 그아래 사궁석(射弓石)이 있는 활터는 가히 백여명이 모일만 하였다. 단군대에서 바라보니 멀리 아득한 곳에 장재이벌의 너른 평야가 펼쳐 있고 부처고개 돈산 건지산 천사산과 추산 광대산 등의 구름들이 점점이 보였다.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人間市場」
●한국 財閥·人脈을 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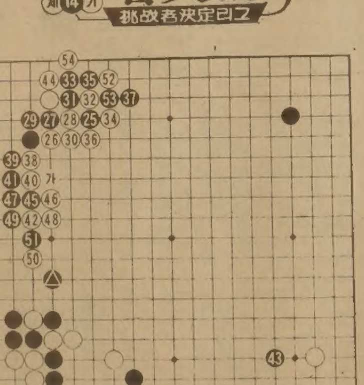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15局 第4譜 25~55 (각5시간·덤5집반)

白(6段)張秀英〈3勝0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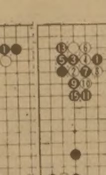
黑(6段)徐能旭〈2勝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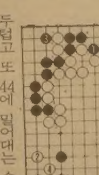
左上에「天地대패」

黑25의 目字싸움은 참고1도와 같이 黑1이하7때 白8로 끊고 16까지(도중 白12는 2자리에따내고 14는 7자리를 이음) 되는것이 가장무난한 기본정석이다. 그러나 예를들어 白8로 9자리를 뻗는등 변화가 하도많아서 속칭「大斜百變」이라하여 복잡한 싸움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실전도 하나의「정형」이거니와 白30을 31로잇고 黑30으로되는정석은 ▲표쪽에 黑이있을때는 무리라고한다. 그리고 黑35, 37도성립되지만 35는黑「가」의 目字가 옳았던 모양이다. 白38이하 42가 두텁고 또 44에 밀어대는 수단이 남아 싸움잘하는 徐6단도 감당키어려울듯.



참고 1도



참고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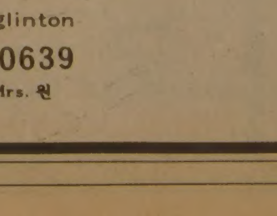
黑43은 53에 가일수해야 정수였으며 더구나 49가결정적미스。이수는 참고2도의 黑1로 두어 白2、4쪽을 양보하는편이 융통성이 있어서 좋았는데 실전은 白52、54로 이른바「천지대패」다。

55…25 【一凡】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 시
(토) 아침10시~저녁 7 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한국일보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라메 관광.
(제일여행사 옆사무실)
649A BLOOR ST. W. TOR. ONT.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방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안내광고 : 533-236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형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야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리셉셔니스트 구함.
영문편지와 영어회화에 능통한자.
전화 : 961-7100. 박종수태권도장. Mr. 박 or 모니카.

도넛숍에서 밤일 풀타임, 파타임
일하실 여자분 구함.
398 Church St.(at Carlton) 전화 : 977-0303

Store Helper 구함
Part Time 유경험자
전화 : 534-0228(Davenport & Dufferin)

"거구장"
경험있는 요리사와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전화 : 742-1618.

웨이트레스 급구.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 757-6334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또는 매주 금요일 현금지불
전화 : 654-6628 Mr. Tommy

〈무역담당 직원구함〉
자격 : (1)대학졸업자 (2)무역경험자 (3)영어능통자 (4)남자 또는 여자분
Stret 년봉 : $25,000
전화 : 677-4749(제니) Jenny

Fast Food 주방헬퍼와 파타임 카운터학생 구함
(경험자 원함)
전화 : 오후6시이후 (R)438-0403, (B)483-0921)

책임있는 가게 홀타임 헬퍼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B)438-6440, R)284-8862

주말 Store 헬퍼 구함. (Etobicoke지역)
전화 : 231-7944 오전중 연락요망

입주하셔서 아이들 돌봐주실분 구함.
오후5시 이후 연락요망
전화 : 276-6911 Mrs. 윤

입주하셔서 남자아애 둘(세살, 일곱살) 돌바주실 아주머니 구합니다. Victoria Pk×Eglington. E.
전화 : 752-1467(낮 12시이후)

일본요리사, 웨이트레스 급구.
Nam Kang Restaurant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파트타임 남자헬퍼 구함.
주 7일 일할분.
1370 Queen St. E. 꼭 내방바람.

살림 돌봐주실 분 구함.
입주나 출퇴근. 미시사가지역.
전화 : 276-0787. Mrs. 손.

경험있는 캐쉬어와 써브마린 하실 여학생 구함.
교통편리. 블로어 & 하이팍 Area.
전화 : 762-6578.

입주하셔서 가족같이 지내시며
애들(3세, 5세 여아) 돌봐주실 분
월 $500 전화 : 741-9575

경험이 많은 캐쉬어와 헬퍼 구함.
68 Yonge St. LULU 카페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인지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매 매

—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전 30권) —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은,
1. 세계최고의 권위있는 백과사전(215년의 역사와 전통)
2. 국민학생부터 중·고등·대학·전문기술자·대학교수까지 사용.
*국민학생용 15권 *ATLAS 지도책 1권
*유치원용 16권 *WEBSTER사전 3권
*유아용 12권 *SCIENCE백과사전 21권
*세계명작전집 54권 *의학백과사전 4권
★"Reading과 Writing에 관한 중요성을 자녀들이 인식하도록 가능하면 일찍부터 지도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열쇠입니다."
★연락처 : (416)469-1350 또는 463-7423 LEE S.W.

▲야채및 과일가게
주매상 $6,000이상. 리스 5+5+5년.
계속 발전되고 있는 동네안의 깨끗한 Plaza내에 위치.
가정형편상 급매코저함. 유경험자나 대가족을 가지신 분은 꼭 한번 보십시요. 아스킹 $59,900
▲Fast Food
Bloor & Yonge의 바쁜 Shopping Center안에 있음. 주매상 $4,500. 리스 3+5년. 짧은 시간. 같은 주인이 7년간 운영. 본국으로 돌아감. 아스킹 $129,000
채준성(David Chae)(B)497-8900 New line Center
Sincere Realty Inc.

빵가게(Bakery) 매매. 프라자내 있음.
아스킹 $189,000(도구포함). 리스 5년.
Dufferin & Steeles. 전화 : 745-7551(Susan)

GIFT STORE(선물가게) 매매. 큰 Mall안에 있음. 리스 1992년까지 + 10년옵션가능.
전화 : 633-7479.

오픈한지 5개월 된 도너츠숍 급매.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3-1733.

쎄미·디타취 벽돌집매매(Montrose & Bloor St.W.)
코리아타운근처. 3Bed Room. 이층집. 완전수리. Parking Lot있음
Asking $99,000. B)596-8681. R)465-1753 Mrs. Chao

Convenience Store 매매. 영 & HWY 7.
새프라자내. 아스킹 $39,000 + 스탁.
리스 5년 + 5년. 전화 : 492-9031(Mr. Tam)

가게 달린 주택 매매.
좋은 위치, 좋은 전망.
전화 : 653-1958 Mr. Viss 영어로 문의바람.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전화 : 487-0108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가게 사실분 또는 매니저 구함.
해밀톤 지역서 성업중.
전화 : 1-560-6400 Mr. 정

교양인의 정서
오강남저 "길벗들의 대화" $10.00
한국일보 총무국 전화 : 533-2361

집과 가게건물 두채를 매매, 혹은 리스코저 함.
매매 19만불. 7만 Down.
전화 : 291-662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000.
렌트 : $700. 리스: 6년+10년 옵션
전화 : 1-388-4825(해밀톤)

Daily Case와 Cooler & 야채다이 팝니다.
전화 : 844-2922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6,000불, 리스5년($650/M)+5년($780/M). 현재 월 Rent $580. Plaza안에 있음.
지역. Hamilton 전화 : 1-528-3986 Mr.리 1-389-7755 Mr.차

햄버거숍 다운타운 주 $5,000
8개월 남은 리스 인수받으실분
568 Yonge St. 전화 : B)921-2941 R)677-3537

도나스 숍 매매. 주 $5,500
Bathurst & 580 Queen St. W.
전화 : 368-2100

매우 바쁜 신발수선가게 매매.
Asking $9만. 전화 : 826-4355.

그로서리가게 매매. 해밀톤시내
건물 포함.
전화 : 1-523-5885

이전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급매.
3 Bed Room. 콘도미니움 타운하우스.
전화 : 493-0615 Mrs. 안(6시반이후)

도너스가게 매매.
주매상 $3,600. 아스킹 $145,000(St. Clair & Midland)
전화 : 421-6964. John or Peter.

〈급매〉 서쪽 끝에 잘 관리된 현대감각의 천과 커텐가게. 필요에 따라 배울때까지 보조함.
Mr. or Mrs. Shine 전화 : 225-6999

버라이어티스토아 건물 포함 매매
주매상 : $4,000 Hamilton
전화 : 1-529-0018

집과 가게딸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4 Bed Room. Eglington & Jane. 아스킹 13만5천불
전화 : 767-5080 Mr.리

Flower & Plant Shop 급매
서쪽끝 좋은장소. 리즌어블 PRICE
전화 : 762-2182 오후7시이후 270-7066 Mr. Mester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Town Houese 매매(좋은 가격) 매매.
Jane & Sheppard지역
전화 : 743-3377 Mr. Eastman

비데오 핀볼 아케이드 매매
짧은 시간, 좋은 수입, 옥빌지역
전화 : 842-6195

상업용건물 매매. Lansdown & Wallace.
3 Bed Room(2층건물, 차고2개)
전화 : 532-9203(오전 9시~12시사이)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교통이 편한 Luxury 아파트 써브렛.
Large 1 Bed Room(언제든지 입주가능함)
191 Sherbourne St. 전화 : 368-8138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상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요일 휴무).
전화: 532-7094(B)248-2437(R)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테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용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함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